『종교와 문화』 제43호
서울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2022. pp. 61-102

유교 군왕의 '기로(耆老)' 정치
: 영조(英祖)의 전략적인 실천들을 중심으로*

임 부 연**

Ⅰ. '노인(老人)'이란 이름
Ⅱ. 기로소의 공간 구조와 신성한 어첩(御帖)
Ⅲ. 영조의 입사(入社) 의례,
군신(君臣)의 담화(談話)와 시(詩)의 문화
Ⅳ. 장수 군왕의 신성한 계보, 하늘과 조상에 대한 믿음
Ⅴ. 기로 정치의 융성과 쇠락

Ⅰ. '노인(老人)'이란 이름

나이를 많이 먹은 게 벼슬일까? 얼핏 보면, 세월의 경과에 따라 자연히 축적되는 '나이'와 국가 차원에서 공적인 권한을 소유하는 '벼슬'은 전혀 무관해 보인다. 그런데 유교에서는 '상치(尙齒)', 곧 나이로 상징되는 이빨이 많은 연장자를 존경하는 전통이 발달하였다. 그 결과 나이가 많으면 높은 벼슬을 가진 것처럼 사회적 존경을 받아야 된다는 관점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 특히 유교 경전에서는 지식인-관료 계층에 대해 10년 단위의 나이로 세분(細分)해서 상이한 명칭과 사회적 역할의 변화를 제시하였다. 가령, 『예기(禮記)』에서는 학업과 관례(冠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9S1A5A2A03048807)
**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강사

禮), 결혼과 관직생활을 거쳐 노년에 이르는 인생의 여정(旅程)을 10년 단위의 나이로 보여주고 있다. 이 여정에 따르면, 40~60대까지는 관직에 종사하고 70세가 되면 자식에게 가사(家事)를 물려주며 8~90세가 되면 형벌을 받지 않으며 100세가 되면 전적인 봉양의 대상이 된다.[1]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노인이 되면 벼슬에서 물러나고 사회적 역할이 축소되지만 원칙상 '경로(敬老)'나 '양로(養老)', 곧 사회적 공경과 봉양의 대상이 되었다.

유교 전통에서는 나이가 사회의 차등적 권위를 부여하는 문화적 기호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하지만 나이든 노인이라고 해서 완전히 동일하게 사회적 존경을 받거나 여유로운 삶을 누리는 것은 아니었으니, 나이에도 계층의 차이가 존재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조정(朝庭)에서 먹고 살기 힘든 늙은 서민[庶老]에게 미백(米帛)을 하사(下賜)하고 잔치를 베푸는 양로의 제도는 철저한 시혜(施惠)의 성격을 갖는다. 이에 비해 고위 관료 출신의 노인들은 '기영회(耆英會)'라는 모임을 만들어 현실의 정치문제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고 음풍농월(吟風弄月)하는 노년의 삶을 누렸다. 기영회는 당(唐)의 백거이(白居易, 772~846)와 송(宋)의 문언박(文彦博, 1006~1097)이 만든 모임에 연원을 두는데, 고려(高麗) 중기 최당(崔讜, 1135~1211)이 이들을 흠모해서 해동기영회(海東耆英會)를 처음 만들었다.[2] 이러한 노년의 문화는 조선(朝鮮)에도 이어져 선비들이 결사(結社)하여 함께 풍류(風流)를 즐기고 유유자적(悠悠自適)하는 풍조가 유행하였다. 늙은 나이와 높은 벼슬이 결합한 결과 노년에 자족(自足)하는 상류층의 사대부 문화가 형성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조선왕조 초기에 태조(太祖) 이성계(李成桂, 1335~1408)는 군왕(君王)의 지위에 있으면서도 '기로회(耆老會)'로도 불린 기영회에 참여하였다고 전해진

---

1) 『禮記』「曲禮(上)」, "사람이 태어나서 10세가 되면 '유(幼)'라 하고 입학(入學)하며, 20세가 되면 '약(弱)'이라 하고 관례(冠禮)를 하며, 30세가 되면 '장(壯)'이라 하고 결혼을 하며, 40세가 되면 '강(强)'이라 하고 벼슬을 나가며, 50세가 되면 '애(艾)'라 하고 관정(官政)을 맡으며, 60세가 되면 '기(耆)'라 하고 남을 지시하고 부리며, 70세가 되면 '노(老)'라고 하고 아들에게 가사를 물려준다. 80세와 90세를 '모(耄)'라 하고 7세를 '도(悼)'라 하는데, 도(悼)와 모(耄)는 비록 죄가 있더라도 형(刑)을 가하지 않는다. 100세가 되면 '기(期)'라 하고 부양(扶養)을 받는다."

2) 權近, 『陽村先生文集』 권19, '後耆英會序'.

다. 곧 1394년 갑술년(甲戌年)에 60세인 태조는 도읍을 한양(漢陽)으로 옮긴 뒤 '기로소(耆老所)'에 가입하여 서쪽 누각[西樓] 벽 위에 자신의 어휘(御諱)를 썼으며 신하들에게는 잔치를 베풀고 토지와 노비, 염분(鹽盆) 등을 하사하였다고 한다.[3] 여기서 기로소는 '기로(耆老)', 곧 나이 70세 이상의 문신(文臣)으로 정2품 이상의 벼슬을 한 노인들이 모이는 장소였다.[4] 원래 기영회 또는 기로회는 노년의 사대부들이 함께 모여 노니는 '사회(私會)'였는데, 군왕인 태조가 가입함으로써 그 모임의 성격이 '공회(公會)'로 변경되고 기로소가 관사의 지위를 얻게 되었다.[5] 기로소는 '기사(耆社)'로도 불린 까닭에 기로소의 가입은 흔히 '입기사(入耆社)' 또는 '입사(入社)'로 불리었다. 특히 태조의 입사는 노인을 존중하는 '존고년(尊高年)'의 성대한 행사였으므로 후대에 '갑술고사(甲戌故事)'로 불리었다. 상치(尙齒)와 경로(敬老)의 의미를 보여준 태조의 입사는 한편으로는 군신(君臣)의 본분[分]을 구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기로(耆老)를 존중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었다.[6] 임금이 신하와 '동사(同社)'한다는 점에서 노인 존중을 몸소 보여주는 동시에 70세에 가입하는 기로와 달리 태조는 '이순(耳順)', 곧 60세의 나이에 입사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비록 기로회에 함께 가입하였지만 태조는 가입하는 나이를 10살 낮춤으로써 신하와 구별되는 임금의 높은 위상을 보여주었다.

1394년에 태조가 입사한 이후 무려 300여 년이 지난 1719년 기해년(己亥年)이

---

3) 李肯翊, 『燃藜室記述』 別集 제6권, 「官職典故」, '耆社'.

4) 『增補文獻備考』에서는 태조가 기로들의 모임인 '기사(耆社)'에 가입함으로써 기로소가 비로소 아문(衙門)으로 성립되었다고 기록하였다. 『增補文獻備考』 제215권 「職官考」 2, '耆社' 참고. 다만 '기로소'라는 정식 명칭은 세종(世宗) 시대에 이르러 확립되었다. 곧 태조 때부터 기로회가 있었지만 태종 때 2품 이상의 한량(閑良)과 기로들의 아문(衙門)으로 '전함재추소(前銜宰樞所)'가 세워지고 세종 때 이 전함재추소를 '치사기로소(致仕耆老所)로 바꾸어 부르게 되었다. 『世宗實錄』 39권, 세종 10년 2월 10일. 이 치사기로소는 뒤에 보통 기로소로 불리었다.

5) 『耆社志』 卷1 「序」, "耆老所, 亦一官司, 而君臣慶會之所也." 『耆社志』는 1849년(헌종 15) 홍경모(洪敬謨, 1774~1851)가 기로소(耆老所)의 전반에 관한 기록을 집대성하여 편찬한 책으로 조선시대 기로소에 관한 종합적인 안내서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서울대 奎章閣韓國學硏究院 소장 필사본[奎7116-v.1-8]을 저본(底本)으로 삼아 인용하였다.

6) 金堉, 『國朝耆老所題名記』, '耆老所題名記', "太祖耳順而入於所, 所以別君臣之分, 而亦所以重耆老也."

되어서야 태조를 계승해서 입사한 후대의 임금이 등장하였으니, 그는 바로 숙종(肅宗, 1661~1720)이었다. 숙종은 세자(훗날의 景宗) 등의 요청으로 1719년 봄 59세의 나이로 입사하였다. 하지만 입사가 실행되는 과정에 우여곡절이 있었으니, 숙종 입사의 근거가 되는 태조의 입사 기록이 관찬(官撰) 사서(史書)인 『태조실록(太祖實錄)』 등에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사실을 확인한 숙종은 입사를 사양하게 되었는데, 종친(宗親)들은 누락된 기록 때문에 입사를 거행하지 않는다면 태조의 '성사(盛事)'가 후세에 영구히 없어지게 되리라는 말로 입사를 강력하게 요청하였다. 이에 감동한 숙종은 2월 11일에 태조의 갑술고사를 계승하여 경덕궁(慶德宮) 흥정당(興政堂)에서 입사 의식을 거행하였다. 우선 제명록(題名錄)은 '기로소어첩(耆老所御帖)'으로 정하고 세자가 어첩에 태조와 숙종의 휘호(徽號)를 대신 적은 다음 기로소로 어첩을 가져가 봉안(奉安)하는 행사가 거행되었다.[7] 태조의 입사를 300여 년 만에 재현한 숙종의 입사는 후대에 '기해고사(己亥故事)'로 불렸는데, 숙종은 태조보다 1살이 적은 59세, 곧 50대에 입사하는 새로운 기록을 남기고 다음해 60세의 나이로 임종(臨終)하였다.

태조 이후 300여 년이 지나서야 숙종이 입사할 정도로 조선의 임금들은 장수(長壽)하지 못하고 대개 30~50대에 죽음을 맞이하였다. 그런데 숙종의 아들 영조(英祖, 1694~1776)는 향년(享年) 83세에 임종하였으니, 그는 조선왕조 역대 임금 가운데 가장 장수한 인물이었다. 특히 영조는 51세의 나이가 '망육(望六)', 곧 60세를 바라본다는 논리로 기로소에 들어감으로써 입사하는 시기를 50대 초반으로 앞당겼다. 영조는 자신이 그렇게 장수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51세라는 이른 나이에 입사를 결행했던 것이다. 1719년 왕자(王子) 연잉군(延礽君)일 때 숙종의 입사를 강력히 요청한 적이 있었던 영조는 1736년 어머니를 모신 숙빈묘(淑嬪廟)를 배알하고 환궁(還宮)하다가 우연히 어첩이 봉안된 영수각(靈壽閣)을 발견하고 기로소에 행차하여 어첩을 열람하였다.[8] 당시 43세의 영조

7) 4월 18일에는 경현당(景賢堂)에서 기로신(耆老臣)들을 위한 기로연(耆老宴)이 거행되었고, 기로소에 위치한 영수각(靈壽閣)이 새로 완성되자 6월 24일에 어첩을 영수각에 봉안하였다. 숙종의 입사 논의 과정, 기로소 입사, 기로연(耆老宴) 전후의 행사와 의주(儀注) 등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다음의 논문을 참고. 김문식, 「1719년 숙종의 기로연 행사」, 『史學志』 40 (2008): 25-47.

는 아버지 숙종을 이어 어첩에 이름을 써서 부자(父子)가 연속으로 입사하는 영광을 소망하였는데, 1743년 50세가 된 영조는 고사(故事)를 추술(追述)하여 기사(耆社)에 이름을 적는 것이 소원(素願)이라고 거듭 밝혔다.[9] 그는 아버지 숙종을 오래 모시지 못한 사실을 늘 지극한 아픔으로 간직한 자식이었다.[10] 따라서 영조가 태조와 숙종의 기로소 가입을 계술(繼述)[11]하여 어첩에 이름을 올리는 일은 영광스런 행운일 뿐만 아니라 자신이 못다 한 효도를 실천하는 의미를 가졌다.

하지만 태조는 60세, 숙종은 59세에 입사한 고사(故事)를 따른다고 하면서 영조가 51세의 이른 나이에 입사하는 일은 신하들의 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었다. 우선, 영조에게 '망육'의 논리를 제공하여 입사를 유도한 인물은 여은군(礪恩君) 이매(李梅, 1697~1750)였다. 그는 1744년(영조 20) 7월 29일 상소(上疏)를 통해 숙종도 59세에 입사했고 영조도 51세이므로 비록 나이에 차이가 있지만 "육순(六旬)을 바라본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望六旬則一也]."고 역설하였다. 이 상소에 대해 영조는 일단 "너무 이르다[太早]."고 말한 뒤 빨리 59세가 되어 선조(先朝)의 고사를 추종(追踵)하고 싶다는 소망을 표시하였다.[12] 그런데 숙종의 선례에 따라 59세에 입사할 생각이었던 영조는 며칠 사이에 마음을 바꾸고 '망육'의 논리에 근거해 51세의 입사를 추진하였다. 이에 대해 대신(大臣)들은 기로(耆老)의 호칭을 얻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반대하였지만[13] 결국 영조의 강력한 입사 의지에 굴복하게 되었다. 하지만 입사를 준비하던 차에 지평(持平) 박성원(朴聖源,

---

8) 『承政院日記』 822책, 영조 12년 3월 18일.

9) 『英祖實錄』 57권, 영조 19년 1월 11일. 영조는 이때 세 가지 소원을 밝혔으니, 첫째는 조정에 당파가 없고 백성이 무사(無事)한 것이요, 둘째는 태조와 숙종의 고사를 추술하여 기사에 이름을 적는 것이요, 셋째는 세자가 성장하여 국사를 위임하고 짐을 벗어 한가하게 지내는 것이었다[上曰: "予無他願. 惟三件事而已. 朝廷無黨, 百姓無事, 至樂也; 追述故事, 書名耆社, 素願也; 元良漸長, 委以國事, 釋負就閒, 苦心也."].

10) 『英祖實錄』 127권, 영조 대왕 묘지문[誌文].

11) '계술(繼述)'은 "효도란 조상의 뜻을 잘 계승하고 조상의 사업을 잘 발전시키는 것이다[夫孝者, 善繼人之志, 善述人之事者也]."라고 한 『중용(中庸)』의 문구에서 나왔다.

12) 『英祖實錄』 59권, 영조 20년 7월 29일.

13) 가령 영의정(領議政) 김재로(金在魯, 1682~1759)는 임금의 입사가 몸을 낮추고 굽히는 일이지 영광이 아니라고 하면서 겨우 나이 50을 넘은 군부(君父)에게 '기로(耆老)'의 호칭을 붙일 수 없다는 말로 반대하였다. 『英祖實錄』 60권, 영조 20년 8월 11일.

1697~1767)이 조종(祖宗)의 고사(故事)에는 '정기(定期)'가 있으므로 51세의 입사는 고사를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신하들이 아첨한 결과라고 혹독하게 비판하였다. 이에 영조는 "네가 어찌 감히 임금이 기사(耆社)에 들어가는 일을 반박하는가?"라고 분노를 표출한 뒤 "노인이란 이름[老人之名]을 얻고자 한 것에 불과하다."고 항변하면서 박성원의 관직을 삭탈하고 유배를 보냈다.[14] 이 논란의 쟁점은 임금의 입사 시기가 구체적인 나이로 고정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었다. 박성원은 태조나 숙종이 입사한 59세나 60세에 입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영조는 10년 단위로 접근하면서 숙종과 자신이 같은 50대이므로 나이의 차이가 있더라도 입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처럼 노인이란 이름을 얻는 과정에 논란이 있었지만 영조는 결국 자신의 의지대로 51세에 입사해서 노인의 이름을 얻고 사회적 공경의 대상이 되었다.

군왕으로서 기로소에 가입한 영조는 기로 정치, 곧 기로의 노인을 중심으로 사회적, 정치적 권위를 차등의 방식으로 창출하거나 증진시키는 정치를 가장 융성하게 발전시켰다. 가령 그는 영수각에 행차해서 어첩에 본인의 휘호를 쓰는 친제(親題) 의례를 처음 거행하였고, 신하가 아니라 본인이 직접 「어첩자서(御帖自叙)」를 썼다. 이러한 전략적인 실천들을 통해 영조는 유교 이념인 '경로'의 은혜를 베푸는 주체에 머물지 않고 노인으로서 경로의 대상이 될 수 있었다. 그 결과 그는 기로의 권위를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태조와 숙종을 이은 장수 군왕의 계보 속에서 신성한 권위의 후광(後光)을 누릴 수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기로 정치의 문화는 기본적으로 영조가 주도하였지만 신하들이 영조의 노력에 호응해서 함께 만들고 향유하였다. 그들은 경로의 이념뿐만 아니라 장수와 덕(德)의 연관성, 하늘과 조상에 대한 종교적 믿음 등을 공유했기 때문이다. 유교 이념에 충실한 기로의 신하 역시 자신들의 차등적 권위를 증진시키는 방법으로 영조의 기로 정치에 동참하였다. 기존에 영조의 기로소 가입은 유교 이념과 탕평(蕩平) 정치, 미술사(美術史)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연구되어 성과가 축적되었다.[15] 다만 기존

14) 『英祖實錄』 60권, 영조 20년 8월 29일.

15) 우선 한국사 분야에서는 조선시대 기로 정책의 역사적 배경, 기로소의 설치와 운영 등의 실상을 유가(儒家)의 효치주의(孝治主義)와 왕권 강화의 맥락에서 연구하거나[박상

의 연구는 영조를 경로의 주체로 보는 경향이 강한 편이고 군신(君臣)이 함께 지은 시(詩)의 내용이나 함께 공유한 종교적 관념을 본격적으로 분석하지는 않았다. 특히 영조는 「어첩자서」 작성 뒤에도 평생에 걸쳐 '소지(小識)'를 추가해서 장수 군왕의 상징적 계보 속에서도 자신의 차등적인 위상을 정당화했는데, 이에 대한 연구가 아직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의 성과를 참고하면서도 기로소 관련 영조의 다양한 전략적인 실천들을 중심으로 군신이 함께 노년의 나이를 활용해 차등적인 사회적, 정치적 권위를 창출했던 유교 군왕의 기로 정치를 밝히고자 한다.

Ⅱ. 기로소의 공간 구조와 신성한 어첩

조선 시대 관사(官司)의 하나였던 '기로소(耆老所)'는 늙은 '기로(耆老)'의 신하들이 서로 모여서 지내던 장소로 한성(漢城) 중부(中部)의 징청방(澄淸坊)에 위치하였다.[16] 기로소는 태조(太祖)가 서루(西樓)에 휘호를 썼다는 고사(故事)에 근거해서 사회(私會)를 벗어나 조정의 관사로 승격되었으며, 징청방의 위치는 경복궁(景福宮) 앞 육조(六曹)거리의 아래를 가리킨다.[17] 광화문(光化門) 앞의 대

환, 『朝鮮時代 耆老政策 硏究』, 서울: 혜안, 2000] 탕평(蕩平) 정치를 지향하는 과정에서 효제(孝弟)의 의리와 삼종혈맥론(三宗血脈論) 등의 맥락으로 영조의 입사가 갖는 정치적 의미를 분석하는[심예원, 「1744년(영조 20) 영조의 耆老所 入社 의례와 정치적 의미」, 『朝鮮時代史學報』 96, (2021): 85-122] 등의 연구가 있었다. 미술사학(美術史學) 분야에서는 숙종대의 『耆社契帖』과 영조대의 『耆社慶會帖』를 비교하는 연구[박정혜, 『조선시대 궁중기록화 연구』, 서울: 일지사, 2000; 임지연, 「肅宗 45년(1719) 『耆社契帖』과 英祖 20년(1744) 『耆社慶會帖』 연구」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2017)]가 있었다. 연향(宴享)의 함께 먹기를 통해 영조의 식사정치를 분석한 연구[엄소연, 『영조의 식사정치』, 서울: 한국외대 지식출판콘텐츠원, 2020]도 있다.

16) 『耆社志』 권1, 「建置」, "耆老所, 在漢城中部澄淸坊, 『輿地勝覽』云: '耆老所, 二品以上年七十者相會之所.'"

17) 『耆社志』 권1, 「耆老立司」, "時我太祖大王, 寶齡躋六旬, 俯就于社, 留御諱於西樓, 又寵以公卿之稀年者. 自是耆社, 不私而公, 儼然爲一官司, 乃開衙於景福宮之前、六曹之下, 稱之曰耆老所. 所者, 處也, 人之所居止之所也, 只是耆老相會之處而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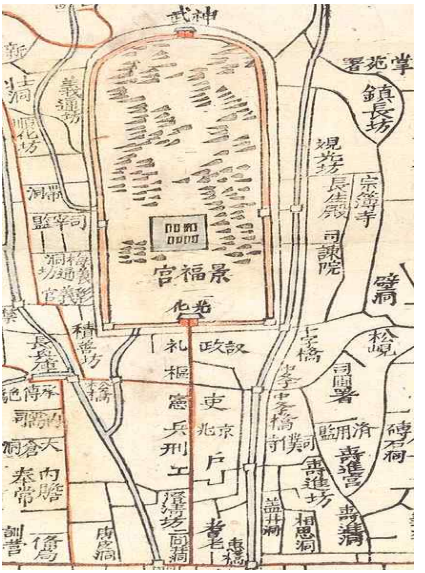

그림 1 「수선전도(首善全圖)」-육조거리, 규장각한국학연구원(古軸4709-10)

로(大路)를 기준으로 동서 양쪽으로 조정의 관사들이 배치되어 있었으니, 기로소는 의정부(議政府)와 이조(吏曹), 한성부(漢城府)와 호조(戶曹)가 자리한 동쪽의 끝에 설치되었다. 이러한 건물 위치는 기로소가 육조처럼 현실의 정책을 집행하는 행정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육조를 사이에 두고 임금의 대궐과 연결되는 관사였다는 역사적 사실을 보여준다. 임금의 입사(入社) 고사가 조선 왕조에만 있었기 때문에 육조거리에 조성된 기로소 역시 일찍이 중국의 역대 왕조에는 전례(前例)가 없는 관사였다.

기로소에 들어가면 "기로소당상(耆老所堂上)" 또는 "기로당상(耆老堂上)"으로 불리는데, '기로(耆老)'는 『예기(禮記)』에 나오듯이 60세의 '기(耆)'와 70세의 '노(老)'가 결합된 글자였다. 원래 사대부 문화에서는 60~70대 노인들의 한가로운 모임이었는데, 태조가 60세, 곧 '기'의 나이에 입사하면서 신하들의 자격이 70세, 곧 '노' 이상의 나이로 제한되었다. 특히 정이품(正二品) 이상 문신(文臣)이어야 가입할 수 있고 음서(蔭敍)와 무과(武科) 출신은 배제되었다.[18] 정원(定員)이 따로 없고 초기에는 상황에 따라 가입 자격을 다소 융통성 있게 적용했지만 인조(仁祖)대 이후로는 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하였다.[19] 그 결과 임금과 더불어 나라를 다스리는 신하 계층도 분할되어 문과(文科)의 과거(科擧) 출신 신하들로만 이뤄진 기로당상의 특권 집단이 형성되었다. 이런 사실에서 조선 왕조가 관료 출신 노인을 공경할 때도 문신에게 더 우월한 지위를 부여한 문치(文治)의 나라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

18) 『新增東國輿地勝覽』 제2권, '기로소(耆老所)'.

19) 『耆社志』 권1, 「職官」.

육조거리에 있던 기로소 건물이 언제 건립되었는지 분명하지 않지만 태조 이후 300여 년 만에 입사한 숙종 시대에 이르러 어첩을 봉안하기 위한 공간으로 '영수각(靈壽閣)'이 새로 건설되었다. 따라서 영조가 입사할 때, 기로소는 기로들이 모여서 대화하거나 잔치를 벌이는 일상의 공간인 '기영관(耆英館)'과 어첩을 봉안한 신성한 영수각으로 구별되었다. 특히 기로소라는 관사의 위상은 어첩을 봉안한 영수각으로 인해 다른 관사와 동렬(同列)에서 논의할 수 없었다. 가령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에서는 '직관고(職官考)'를 지을 때, 영수각에 세 성왕(聖王), 곧 태조와 숙종, 그리고 영조의 보첩(寶牒: 御帖)을 모시고 있으므로 감히 다른 관사와 함께 나열할 수 없다는 관점에 따라 별도로 '기사(耆社)' 한 편을 지어 다른 관사의 앞에 배치하였다.[20] 다시 말해 기로소는 비록 실권이 있는 기구는 아니었지만 세 임금의 어첩을 봉안하는 영수각이 있으므로 종실(宗室)이나 의정부(議政府), 육조(六曹) 등의 관사보다 더 높은 상징적 권위를 갖고 있었다. 태조와 숙종의 어첩을 봉안한 영수각은 광화문 앞에 동서로 배치된 의정부와 육조의 관사를 뛰어넘어 경복궁과 조응(照應)하면서 신성한 임금의 후광(後光)을 발휘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임금의 공간인 영수각과 신하의 공간인 기영관은 권위가 차등적으로 부여되었다. 기로소에 투영된 임금과 신하의 관계성을 이해하려면, 먼저 영수각과 기영관의 공간 구조를 각각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영수각은 기영관의 동쪽에 있으며, 숙종대 기해년에 새로 건축한 누각 한 칸으로 남향(南向)이다. 중앙의 벽에는 채감(彩龕)을 설치하여 어첩을 봉안하였다. 앞에는 분합(分閤)을 설치하고 사면(四面)에는 전퇴(前退)를 만들었으며, 각 반 칸에 복함(伏檻)으로 둘렀다. 계단 아래에는 사각(四角)에 염수분(塩水盆) 설치하였다. 높은 담장으로 둘렀으며 남쪽에는 삼문(三門) 세 칸이 있었다.[21]

---

20) 『增補文獻備考』 제215권 「職官考」2, '耆社'. 「職官考」의 구성을 보면, 「職官考」1에서는 고대의 삼국(三國) 이상의 관제를 다루고, 「職官考」2에서 '기사'를, 「職官考」3에서는 종실(宗室)과 상부(相府)를, 「職官考」4에서는 제부(諸府), 「職官考」5에서는 '육관(六官)'을 다루고 있다.

21) 『耆社志』 권1, 「館宇」, "靈壽閣, 在耆英館東, 肅宗己亥新建閣一間南向. 中壁設彩龕, 奉安御帖. 前設分閤, 四面前退, 各半間環以伏檻. 階下置塩水盆於四角. 繞之以高墻, 南有三門三間."

영수각의 건설은 기해년, 곧 1719년 숙종의 입사를 계기로 추진되었다. 1719년 2월 11일 홍정당(興政堂)에서 입사 의례가 거행되어 세자가 몸이 불편한 숙종 대신 어첩에 태조와 숙종의 휘호를 썼다. 숙종과 신하들이 이 기로소어첩을 열람하였을 때 영의정 김창집(金昌集, 1648~1722)이 새로운 누각의 건설을 건의하였다. 어첩을 서루(西樓)의 구감(舊龕)에 봉안(奉安)해야 하는데, 감실(龕室)의 벽(壁)이 허물어져 오랫동안 봉안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22] 이 요청을 숙종이 받아들여 영수각의 건설이 시작되었고, 홍문관에서 각호(閣號)로 '영수각(靈壽閣)', '만년각(萬年閣)', '승휴각(承休閣)' 세 가지 방안을 올렸을 때 숙종이 영수각으로 낙점하였다. 영수각이란 명칭은 임금의 장수를 축원한다는 뜻을 갖는다.[23] 1719년 3월 18일에 영수각을 건축하기 시작해서 25일에 상량(上梁)하였다. 영수각의 편액은 우참찬 신임(申鉁, 1639~1725)이 쓰고 상량문은 홍문관 부제학 이관명(李觀命, 1661~1733)이 작성하였다. 영수각은 6월 9일 완성되었는데, 예조(禮曹)에서 영수각 어첩 이안(移安)의 길일(吉日)로 6월 24일 사시(巳時)를 제시하여 그 일시(日時)에 어첩을 옮겨서 봉안하였다.[24] 곧 2월 11일에 작성한 기로소어첩은 기영관 누각의 벽감(壁龕)에 임시로 두었다가 6월 24일에 새로 건설된 영수각으로 옮겨서 봉안되었다.[25]

새로 건축된 영수각의 공간 구조를 보면, 우선 기로신들의 공간인 기영관보다 대궐에 더 가깝게 동북쪽에 배치되었다. 원래 기영관의 건물은 태조의 서루 고사를 간직하였는데, 태조와 숙종의 어첩을 새로 제작하고 영수각에 봉안함으로써 태조의 상징적 권위 역시 영수각으로 이전되었다. 그리고 마치 임금이 대궐에서 남면(南面)하듯이 영수각도 남향으로 지어졌다. 특히 어첩을 봉안하기 위해 채감을 설치했을 뿐만 아니라 분합과 전퇴, 복함 등으로 공간을 치장하고 삼문을 세

---

22) 『肅宗實錄』 63권, 숙종 45년 2월 11일.

23) 『耆社志』 권13, '西樓文藻' '靈壽閣記', "閣以靈壽名, 祝聖壽也."

24) 『耆社志』 권1, 「館宇」.

25) 『春官志』 권2, "書曰耆老所御貼. … 奉安于耆英閣壁龕. 其後建靈壽閣于耆閣之後以奉之" 숙종이 입사한 2월 12일에 어첩을 용정(龍亭)에 받들고 의장(儀仗)과 고취(鼓吹)를 갖추어서 기영관의 벽감에 봉안했다가 6월 24일 영수각으로 옮겨서 봉안하였다. 『耆社志』 권2, 「靈壽玉牒」 참고.

움으로써 신성한 권위를 표시하였다. 높은 담장과 나무들로 둘러싼 영수각은 평상시에는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적막하고 신성한 공간이었으니, 일상의 생활공간을 겸비한 기영관과 대비되었다. 다시 말해 영수각이 추모와 예배의 대상으로서 초일상(超日常)의 공간이었다면 기영관은 기로신들이 모이고 잔치를 벌이며 관원들이 관리하는 일상의 공간이었다.

> 기영관은 영수각의 서쪽에 있고, 방(房) 2칸에 헌(軒) 6칸의 남향(南向)이다. 중앙의 벽에는 감실을 설치하여 '기로선생안(耆老先生案)'을 소장하고, 네 기둥에는 숙종과 영종, 정종 세 조정의 어제(御製)와 기신(耆臣)의 갱시(賡詩)를 나누어 게시하였다. 문호(門戶) 위에는 '기영관(耆英館)', '진솔당(眞率堂)', '수역(壽域)' 등의 액자가 걸려 있었다. … 기사의 도상첩(圖像帖)은 각(閣)의 한 칸에 봉안했는데, 처마와 마루가 서리방(書吏房)과 연결되어 있었다. 서리방은 2칸 반에 남향이었다. 수직관(守直官)의 직소(直所)는 방 한 칸 반에 헌(軒) 한 칸으로 남향이었다. … 낙우외양소(酪牛喂養所)는 4칸이고, 주방은 2칸에 헌과 부엌은 두 칸이고 모두 동향(東向)이었다. 대문은 1칸에 남향이며 편액에는 "기영사(耆英社)"라고 쓰여 있었다. 대소(大小)의 인원(人員)이 말에서 내리는 석비(石碑)는 문밖에 있었다.[26]

영수각의 감실에 어첩이 봉안되어 있듯이 기영관의 감실에는 기로소에 들어온 인물들의 인적 사항이 기록된 '선생안(先生案)'이 봉안되었다. 다만 기로소에 입사한 인물들의 제명기(題名記)는 임진왜란(壬辰倭亂)을 거치면서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후대에 보충해서 만들었다.[27] 여기에는 관직과 성명(姓名), 연령(年齡)과

---

26) 『耆社志』 권1, 「館宇」, "耆英館, 在靈壽閣西, 房二間軒六間南向. 中壁設龕, 藏耆老先生案. 四樑分揭肅宗、英宗、正宗三朝御製耆臣賡詩. 扁揭'耆英館'、'眞率堂'、'壽域'等額. … 耆社圖像帖, 奉安閣一間, 聯檐通脊於書吏房, 房二間半東向. 守直官直所, 房一間半軒一間南向. … 酪牛喂養所四間, 廚房二間, 軒二間, 廚二間, 幷東向. 大門, 一間南向, 扁曰'耆英社'. 大小人員下馬石碑, 在門外.

27) 우선, 이호민(李好閔)이 등과기(登科記)와 각 사람의 비지(碑誌)를 취하고 견문(見聞)에 따라 편입하였는데, 이를 '구록(舊錄)'이라 부르고, 서문중(徐文重)이 구록을 취하여 바로잡아 고치고 빠진 사람 46인을 보충해서 첨가하고 이를 '부록(附錄)'이라 부르며, 이의현(李宜顯)이 또 두 번째 수정(修正)을 하여 다시 누락된 사람 47인을 더 보태고 각각 '재보(再補)'라는 글자는 이름 밑에 썼다. 『增補文獻備考』 제215권 「職官考」2, '耆社' 참고.

본관(本貫) 등이 기록되었다. 특히 숙종 때부터는 입사한 기로신들의 모습을 도상(圖像)으로 제작하여 기영관에서 보관하였다. 1719년 숙종의 입사를 기념하기 위해 제작된 『기사계첩(耆社契帖)』에는 어첩을 봉안하고 잔치를 베푸는 장면뿐만 아니라 기로신 10인의 초상화가 실려 있다. 그리고 1744년 영조의 입사를 기념하는 『기사경회첩(耆社慶會帖)』에도 8인의 기로신 초상화가 실려 있었다. 원래 국초(國初)에는 없었던 기로신의 도상첩이 숙종 시대 이후 제작되기 시작하였으니, 이는 노인을 우대하는 특별한 은혜로 평가되었다.[28] 이와 같이 기영관에 보관된 선생안과 초상화를 통해 기로의 신하들은 태조, 숙종, 영조와 함께 '동사(同社)', 곧 동일한 회원(會員)이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 이러한 영광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영관에는 각종 관원이 활동하거나 음식을 만드는 등 일상의 관리와 생활에 필요한 시설들이 설치되었던 것이다.

기로의 신하들을 위한 기영관은 숙종과 영종, 정종이 지은 시를 기둥에 게시함으로써 임금의 후광(後光)을 일부분 공유하였다. 하지만 기로소가 갖는 권위의 원천은 영수각에 봉안된 어첩(御帖)이었으니, 이 어첩의 존재야말로 기로소의 독보적인 존재 의의를 보여준다. 따라서 먼저 어첩의 제작 경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1719년 2월 11일 숙종이 입사하기 하루 전날에 예부(禮部)의 신하가 어첩의 제작을 건의하였다. 곧 하나의 첩자(帖子)를 만들어 춘궁(春宮: 세자)이 태조(太祖)의 존호(尊號)와 가입한 연월일(年月日)을 쓰고 그 아래에도 숙종의 존호와 몇년 몇월 며칠에 가입했는지 써서 기로소에 봉안하게 해달라는 건의였다.[29] 그리하여 2월 11일 숙종이 입사할 때 어첩의 명칭으로 기로소 당상(耆老所堂上) 영의정 김창집은 "기소어첩안(耆所御帖案)"을, 승지 신사철(申思喆, 1671~1759)은 "기로소어첩(耆老所御帖)"을 제안하였는데 숙종이 '기로소어첩'으로 정하였다.[30] 일찍이 태조는 기영관의 서루에 휘호를 직접 썼다는 고사를 남겼지만 이미

28) 『耆社志』 권9, 「圖像」, "耆社之設, 盖自國初, 入社耆老之圖像, 前未有也. 自我肅廟入社後, 始命耆臣之同社者, 各自繪像, 俾藏于耆英館. 自後耆臣之入社者, 皆得有像, 寔出優老之特恩也."

29) 『承政院日記』 513책, 숙종 45년 2월 11일.

30) 김창집은 각사(各司)의 제명록(題名錄)을 모두 '선생안(先生案)'이라 부르지만 어첩을 선생안으로 부를 수는 없다고 하면서 "기소어첩안(耆所御帖案)"이란 명칭을 제안하였

그 흔적이 없어진 상태에서 각사(各司)의 선생안과 유사한 방식으로 어첩이 새로 만들어졌다. 따라서 신하들의 제명록(題名錄), 곧 선생안이 어첩 제작의 전범(典範)이었다고 평할 수 있다. 태조-숙종-영조로 이어지는 입사의 계보에 따라 만들어진 어첩은 장(張)을 나누어서 각각 임금의 휘호를 적은 다음 입사한 연월일을 적는 방식으로 제작되었다.

> 태조강헌지인계운성문신무정의광덕대왕(太祖康獻至仁啓運聖文神武正義光德大王)
> 갑술년[甲戌] 10월 몇일에 입사 …
> 현의광륜예성영열왕(顯義光倫睿聖英烈王)
> 기해년[己亥] 2월 12일에 입사 …
> 지행순덕영모의열왕(至行純德英謨毅烈王)
> 갑자년[甲子] 9월 9일에 입사[31]

어첩의 구성을 보면, 첫 장에는 1394년[甲戌年]에 입사한 태조의 휘호와 입사한 달이 적혀 있다. 특히 그는 기로소의 서쪽 누각 벽 위에 자신의 휘호를 친히 써서 사롱(紗籠)으로 보호했다는 고사를 남겼다. 태조의 입사 이후 326년이 지난 1719년[己亥年] 2월 12일에 숙종이 입사하면서 영수각을 새로 건축하고 어첩을 제작하여 그곳의 벽감(壁龕)에 봉안하였다. 숙종은 당시 홍정당에서 세자를 시켜 첫 장에 태조의 휘호와 입사 연월일을, 둘째 장에 본인의 휘호와 입사 연월일을 적게 하였다. 셋째 장에는 1744년[甲子年] 9월 9일 영조가 병 때문에 세자로 하여금 대신 쓰게 했던 아버지 숙종의 뜻을 체득하여 직접 본인의 휘호와 입사 연월을 적었다. 특히 그는 이미 영수각에 봉안된 어첩을 자신이 추가해서 쓰기 위해 대궐로 가져오게 할 수는 없다고 여긴 까닭에 직접 영수각에 행차하여 궤장(几杖)을 받고 어첩에 쓰는 친제(親題) 의식을 거행하였다.[32] 어첩에는 임금의

다. 하지만 신사철이 '기(耆)'자 아래에 '노(老)'자가 있어야 하고 '첩(帖)'자과 '안(案)'자가 중첩(重疊)이라고 지적한 결과 숙종이 '기로소어첩(耆老所御帖)'으로 낙점하였다. 『肅宗實錄』 63권, 숙종 45년 2월 11일.

31) 『耆社志』 권2, 「靈壽玉牒」, "太祖康獻至仁啓運聖文神武正義光德大王, 甲戌十月日入耆社. … 顯義光倫睿聖英烈王, 己亥二月十二日入耆社. … 至行純德英謨毅烈王, 甲子九月初九日入耆社."

휘호와 입사 연월이 적혀 있을 뿐이지만 어첩 자체가 돌아가신 임금의 분신처럼 여겨졌다. 가령 영조는 1744년 10월 7일 숭정전(崇政殿)에서 기로소 입사를 축하하는 진연(進宴)을 받았는데, 이때 기로신에게 어찬(御饌)을 하사하면서 고취(鼓吹)로 전도(前導)하여 영수각에 이르게 하였다. 영조는 자신의 귀에 들리는 음악 소리가 어첩이 봉안된 영수각에도 전달되기를 바랐기 때문이었다.[33] 이는 마치 신주(神主)에 깃든 조상신이 감응하듯이 감실의 어첩에 적힌 태조와 숙종의 신령도 살아있는 분들처럼 섬기려는 영조의 효심(孝心)을 보여주는 발언이었다.

신성한 어첩과 관련해서 살펴볼 중요한 글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숙종 시절 김유(金楺, 1653~1719)가 지은 「어첩발문(御帖跋文)」과 영조가 지은 「어첩자서(御帖自叙)」였다. 숙종의 입사에 앞서 1719년 2월 10일 도제조(都提調) 이이명(李頤命, 1658~1722)이 태조의 성대한 입사 기록이 사가(私家)의 문자에만 의존하여 논란이 된 사실을 시정하기 위해 어첩의 발문을 지어 태조의 고사(故事)와 숙종의 성거(盛擧)를 영구히 유전(流傳)시킬 것을 건의하였다.[34] 그 결과 대제학 김유가 사신(詞臣)으로서 지은 글이 바로 「어첩발문」이었으니, 여기서는 태조의 입사 기록을 역사적 사실로 기술하고 숙종의 입사 경위와 유교적 의의를 제시하였다. 이에 비해 영조는 숙종 때처럼 사신에게 입사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여 후대에 보이라는 신하의 건의를 "반드시 찬양하는 말이 많을 것이다."라는 말로 물리치고 직접 「어첩자서」를 지었다.[35] 1744년 9월 12일 영조가 쓴 「어첩자서」는 예방승지 조명리(趙明履, 1697～1756)가 용정(龍亭)에 싣고 기로소에 갔는데 날이 저물어 장황(粧繟)하지 못하고 기영관 대청의 벽감(壁龕)에 안치했다가 다음날 아침 장황한 뒤에야 영수각 어첩 상자 안에 봉안되었다.[36] 이 「어첩자서」는 유교적 이념으로 채색된 김유의 「발문」과 달리 영조 자신의 주관적인 관점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

32) 『增補文獻備考』 제215권 「職官考」2, '耆社'

33) 『承政院日記』 978책, 영조 20년 10월 7일.

34) 『肅宗實錄』 63권, 숙종 45년 2월 10일.

35) 『英祖實錄』 60권, 영조 20년 9월 10일.

36) 『耆社志』 권2, 「靈壽玉牒」.

> 아! 내가 지난 세월을 거치면서 어찌 오늘이 있으리라 생각했겠는가? 매우 다행히 몸소 옛 전범을 따라 영수각에 배알하고 어첩을 적게 되었다. 어첩 상자를 열어보니 눈물이 얼굴을 적시고, 궤장을 받아보니 감흥이 일어났다. 대신과 여러 신료들이 발문을 계속 지어달라고 청하였지만 일이 번거로운 절차에 가까워서 내버려두라고 하였다. 그런데 궁궐로 돌아와 깊은 밤이 되자 추모의 마음이 배가되어 그 일을 대략 서술하여 이 마음을 표현하지 않을 수 없었다. … 내가 오늘날에 이른 것은 본시 조상의 신령께서 오르내리시며 도움을 베푼 것이지만 또한 세 가지 요소가 있다. 첫째로 비록 이 임금의 지위에 있지만 마음만은 세자 때와 다름이 없고, 둘째로 비록 학문이 얕지만 욕심을 위해 죽는 일에 대한 선현(先賢)의 경계를 체득하였으며, 셋째로 비록 궁궐의 맛있는 음식 속에 있었지만 스스로 그 담백함을 받들었기 때문이다. 아! 뒤를 잇는 임금이 만약 고사를 따라 준수하고자 한다면, 이 마음을 버리고 무엇을 앞세운단 말인가? 아! 이는 과장하는 글이 아니다. 한편으론 감회를 말하고 다른 한편으론 후대의 군주를 권면하려는 것이다.[37]

영조가 지은 「어첩자서」의 내용은 크게 주관적인 감회를 기술하는 '술회(述懷)'와 후대의 임금에게 가르침을 전해서 권면하는 '면후(勉後)'로 구분되었다. 우선, '술회' 부분에서는 태조와 숙종을 계승하여 입사하게 된 감격과 추모의 마음을 눈물로 표현하였다. 영조는 조선을 개국한 태조와 왕통(王統)을 물려준 아버지 숙종을 이어서 입사의 소원(素願)을 성취하였으니, 그 감회가 남다를 수밖에 없었다. 51세의 이른 나이에 노인의 이름을 얻어 어첩에 태조-숙종과 함께 장수 국왕의 계보에 동렬(同列)로 등재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기 때문이다. '면후' 부분에서는 이러한 입사의 행운과 영광이 근원적으로 조상의 은덕일 뿐만 아니라 본인의 덕 3가지 때문이라고 제시하면서 수훈(垂訓)하였다. 곧 임금으로서 ①초심(初心)을 유지하고 ②욕심을 절제하며 ③담백한 음식을 먹어야 한다는 가르

37) 『耆社慶會帖』「御帖自叙」, 國立中央博物館, 본관8196(35-1~2), "噫! 以小子之備經往歲, 豈意有今日, 而何幸躬追舊典, 拜閣書帖, 開寶匣而涕被, 受几杖而興感. 大臣諸臣, 請以續撰跋文, 而事近繁文, 其令置之, 而回闕半夜, 追慕一倍, 不可不略敍, 其事以寓此懷. … 予之至于今日, 固是陟降之垂佑, 而亦有三焉. 其一, 雖居此位, 心則無異在邸. 其一, 其雖涼乎學問, 體先賢殉欲之戒. 其一, 雖在厦氈玉食之中, 自奉其猶澹然故也. 噫! 後嗣君若欲追遵乎故事, 舍此心奚先? 噫! 此非夸大之文, 一則述懷, 一則勉後." 본 논문에서 인용하는 『耆社慶會帖』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이다.

침이었다. 이러한 영조의 감회와 가르침은 숙종 입사의 유교적 의의를 강조한 김유의 「발문」과 대비된다. 김유는 숙종의 입사가 세 가지 선(善), 곧 ①선조의 뜻을 이어서 일을 계승한 효도[孝], ②노인을 공경하고 노년의 사람을 존경한 공경[敬], ③상하(上下)가 함께 즐거워하는 인(仁)을 갖추었다고 평하였다.[38] 이와 같이 김유가 유교의 유구한 상치(尙齒)의 전통 속에서 입사가 갖는 의의를 세 가지 선한 덕목으로 제시한 반면, 군사(君師)를 자임한 영조는 세 가지 마음의 지혜를 후대의 임금에게 전하려 노력하였다. 후대의 임금이 이 마음의 지혜를 체득해야 장수해서 기로소에 가입하고 장수 군왕의 계보가 면면(綿綿)히 전승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Ⅲ. 영조의 입사 의례, 군신(君臣)의 담화(談話)와 시(詩)의 문화

1744년 9월 9일, 영조는 태조와 숙종을 이어서 기로소 입사의 의식을 성대하게 거행하였다. 그의 입사는 태조의 서루(西樓) 고사(故事)를 흠모했던 그의 소원이 성취된 결과였다.[39] 그런데 태조와 숙종의 고사를 계승한 그의 입사 풍경은 기존의 입사 때와는 다를 수밖에 없었다. 태조는 기로소가 관사로서 성립되기 전에 입사하였고, 숙종은 기로소에 행차하지 않은 채 대궐에서 입사의 의식을 거행했기 때문이다. 영조는 1719년 숙종이 입사한 기해년의 고사를 계승하면서도 기로소 행차의 여정과 어첩 제작의 방식을 새롭게 구성하여 차별화시켰다. 우선, 영조는 역대 임금과 왕후의 어진(御眞)을 모신 선원전(璿源殿)에 배알(拜謁)하고 나서 기로소에 행차하여 어첩에 휘호를 쓰는 선례를 만들고자 하였다. 어첩을 처음 제작한 기해년에는 안질(眼疾)을 겪고 있던 숙종을 대신해 편전(便殿)에서 세자가

38) 金樉,『儉齋集』권21, '耆老所御帖跋文【己亥】', "伏而思之, 殿下玆事, 一擧而三善具焉, 繼志而述事也, 敬老而尊年也, 上下之同樂也. 率太祖已行之軌, 而成宣廟未及之志, 孝莫大焉. 貴而能下, 尊而能屈, 敬莫尙焉. 不私於一己, 而普恩於八方, 仁莫盛焉. 以孝敎而親親之道昌, 以敬敎而長長之風興, 以仁敎而熙熙之俗成."

39)『英祖實錄』127권, 영조 대왕 묘지문[誌文], "常慕西樓故事."

어첩에 존호(尊號)를 쓴 다음 영수각에 봉안했었다. 하지만 1744년 영조는 영수각에 이미 봉안된 어첩을 궐내(闕內)로 가져올 수 없다고 하면서 기로소에 행차해 본인의 존호를 직접 쓰기로 결정했다.[40] 또한 기영관에 행차했을 때 환궁(還宮)하기 전 어머니 숙빈(淑嬪) 최씨(崔氏, 1670~1718)를 모신 사묘(私廟: 毓祥廟)에 배알하도록 명하였다.[41] 따라서 1744년의 입사 의식의 행차는 선대의 임금을 모신 선원전과 아버지 숙종의 어첩을 봉안한 기로소, 그리고 어머니를 모신 육상궁으로 이어지는 효도의 여정으로 설계되었던 것이다.

영조의 기로소에 행차하기 전에 조정의 담당 기관에서는 입사에 필요한 물품을 미리 준비하였다. 영수각에서 어첩에 쓸 때 사용하는 붓과 먹, 벼루와 책상뿐만 아니라 영조와 세자가 머무는 악차(幄次)와 판위(版位), 그리고 영수각 내부에서 앉는 욕석(褥席) 등의 물건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특히 하루 전에는 관서에서 임금의 악차를 기영관(耆英館)의 남향(南向)으로 설치하고 왕세자의 악차는 그 뒤에 설치하였으며, 전의(典儀)는 입시(入侍)한 제신(諸臣)의 배위(拜位)를 왕세자 뒤에 북향(北向)으로 설치하였다.[42] 기로소 행차 당일 새벽에는 예조(禮曹)에서 종묘에 입사를 고하는 고묘(告廟)의 예절이 거행되었다. 1744년 8월 26일 예조판서 이종성(李宗城, 1692~1759)은 영조에게 숙종 때처럼 고묘와 칭경(稱慶)의 예절을 거행해야 한다고 청하였는데, 영조는 과대(誇大)하지 않으려는 마음에서 고묘만 허락하고 칭경은 거절하였다.[43] 1744년 9월 9일 아침 익선관(翼善冠)을 쓰고 곤룡포(袞龍袍)를 입은 영조는 경덕궁(慶德宮) 숭정전(崇政殿)을 경유하여 숭정문(崇政門) 밖으로 나가 흥화문(興化門)을 거쳐 묘시(卯時)에 창덕궁 선원전을 배알하였다.[44] 영조가 출궁(出宮)할 때 종친(宗親)과 문무(文武) 백관(百官)은 돈화문(敦化門) 밖에 동서(東西)로 서립(序立)했다가 어가(御駕)가 이르면서부터 시위(侍衛)하였다.

---

40) 『承政院日記』 976책, 영조 20년 8월 26일.

41) 『英祖實錄』 60권, 영조 20년 9월 9일.

42) 『(國朝)續五禮儀』(圭1479), 「御帖奉安耆社儀」.

43) 『承政院日記』 976책, 영조 20년 8월 26일.

44) 『承政院日記』 977책, 영조 20년 9월 9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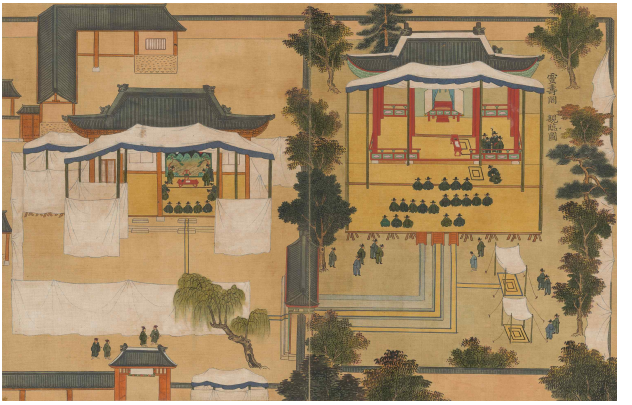

그림 2 「영수각 친림도」, 국립중앙박물관(본관 8196)

기로소의 대문에는 숙종 시절 우참찬 신임(申鉅)이 쓴 '기영사(耆英社)'라는 편액이 걸려 있었고, 기로소 건물은 크게 왼쪽의 기영관과 오른쪽의 영수각으로 구성되었다. 우선 종친과 문무백관은 대문 밖에 머물고 영조와 세자와 통례(通禮)의 인도에 따라 기영관 뜰에 마련한 악차에 들어갔다. 이 악차에서 영조는 향후 일정과 입사 방식 등을 상의하거나 결정하였다. 가령 그는 어첩을 봉심(奉審)할 때 대신(大臣)·기로당상(耆社堂上)·예관(禮官) 각 한 명이 입시(入侍)하고, 영수각의 뜰에서 전알(展謁)할 때 대신(大臣)·승사(承史)·기신(耆臣)·예관(禮官)이 마당에 들어오며, 환궁할 때 사묘(私廟)에 배알할 것 등을 결정하였다.[45] 그리고 인의(引儀)는 흑단령(黑團領)을 착용한 대신(大臣)과 기사당상(耆社堂上), 예관(禮官)을 인도하여 먼저 영수각 마당 중 배위(拜位)로 가도록 하고, 상례(相禮)는 왕세자(王世子)을 인도하여 들어가 자리에 서게 하였다. 그런 뒤에 영조는 통례(通禮)의 인도로 기영관에서 영수각으로 이어지는 동문(東門)을 거쳐 영수각 뜰로 들어가 동쪽의 판위에 가서 북향(北向)으로 섰다. 그리고 영조가 기로당상으로 하여금 감실을 열라고 명하여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 신사철(申思喆, 1671~1759)이 영수각에 올라가 감실의 문을 열었다. 전의(典儀)가 "사배(四拜)"라고 말하면 영조와 세자, 대신 이하 모두 몸을 굽혀서 네 번 절하고 몸을 폈

45) 『承政院日記』 977책, 영조 20년 9월 9일.

다.[46] 이와 같이 영수각 마당에서 군신(君臣)이 함께 숙배(肅拜)의 의식을 거행한 뒤 영수각에 올라가서 어첩 친제의 의식을 거행하였다.

> 임금이 세자를 거느리고 창덕궁(昌德宮)에 나아가서 선원전(璿源殿)을 배알하고, 이어서 기로소(耆老所)에 행차하였다. 영수각(靈壽閣) 뜰의 동쪽에 나아가서 4배례를 행하고 영수각의 안으로 올라가서 서쪽으로 향하여 영내(楹內)에 앉고, 왕세자는 영외(楹外)에 앉았다. 시임 대신(時任大臣)과 원임 대신(原任大臣)·기로제신(耆老諸臣)·예관(禮官)·승지와 사관은 계단 위에서 모시었다. 기사(耆社) 당상관 신사철(申思喆)이 나아가서 영수각 안의 감실(龕室)을 열고, 예조판서 이종성(李宗城)과 예방승지 조명리(趙明履)가 어첩(御帖)을 받들어 꿇어앉아 어전에 올리니, 임금이 친히 어첩에 '지행순덕영모의열왕(至行純德英謨毅烈王)'이라고 썼다.[47]

「영수각(靈壽閣) 친림도(親臨圖)」(그림 2)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영수각 위로 올라온 사람들의 공간은 두 부분으로 구분되었다. 우선, 신성한 어첩을 모신 벽감이 영수각의 중심이 되고 그 앞에는 어첩 상자를 놓는 책상이 있고 그 왼쪽 아래로 어첩을 놓는 책상과 임금의 욕석(褥席)이 놓여 있다. 그 뒤로 임금을 모시는 내시 등이 서 있다. 이곳은 영수각의 영내(楹內)로서 신성한 벽감과 직접 맞닿아 있는 임금의 공간이었다. 그 뒤에 영수각의 기둥 밖으로 세자의 욕석이 설치되어 있으니, 이곳은 미래의 임금이 머무는 공간이었다. 그런데 크게 보면 세자 역시 아직은 신하의 범주에 속한다. 그리고 영수각의 계단 위의 널에는 대신과 기로당상, 예관과 승지가 북향으로 엎드려 있고 사관은 그 뒤에 있었으니, 이는 신하의 공간이었다. 이처럼 영수각 내부의 공간은 철저히 임금과 신하의 차등 질서에 따라 철저히 구획되었다. 따라서 임금과 신하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권위의 차이가 존재하였다. 비록 기로소의 입사(入社) 의식이었지만 임금과 신하의

---

46) 『(國朝)續五禮儀』(圭1479), 「御帖奉安耆社儀」.

47) 『英祖實錄』 60권, 영조 20년 9월 9일, "上率世子, 詣昌德宮, 謁璿源殿, 仍幸耆老所. 就靈壽閣庭東, 行四拜禮, 陞御閣內西向, 坐楹內, 王世子坐楹外. 時·原任大臣、耆老諸臣、禮官、承、史, 侍於階上. 耆社堂上申思喆進開閣內龕室, 禮曹判書李宗城、禮房承旨趙明履奉御帖, 跪進于前, 上親書于帖曰'至行純德英謨毅烈王.'"

위계질서는 없어지거나 약화되지 않고 공간의 차등적인 배치를 통해 더욱 부각되었다. 곧 기로신과 '동류(同流)'가 되었지만 영조는 신성한 어첩과 가장 가까운 공간에 있음으로써 태조와 숙종의 후광을 공유하는 독보적인 위상을 과시하였다.

영수각의 감실을 열고 영조가 영내에 올랐다고 해서 곧바로 친제의 의식이 거행되지는 않았다. 욕석에 앉은 영조는 먼저 붓과 벼루의 대령을 확인하고, 예방승지 조명리가 올린 어첩의 발문책(跋文冊)을 계기로 각사(各司)의 선생안(先生案)에 모두 발문이 있는지 등을 논의하였다. 또한 어첩은 한 장에 열서(列書)하지 않고 기해년처럼 각 장에 쓰기로 결정하였다. 이처럼 준비를 마친 상태에서 조명리가 어첩 상자를 영조 앞에 놓고 열어 어첩을 꺼내서 책안(冊案) 위에 놓았다. 이에 영조는 어첩을 열람하고 어첩 3번째 장에 친히 '지행순덕영모의열(至行純德英謨毅烈)'이란 존호와 '왕(王)'이란 글자를 쓰고 입사한 연월일을 적었다. 그리고 입시(入侍)한 대신들이 영조가 친히 쓴 내용을 봉심(奉審)한 다음 조명리가 어첩을 다시 상자에 넣고 감실에 봉안하였다.[48] 이로써 조선 왕조에서 처음으로 기로소의 영수각에서 거행된 어첩 친제의 의식이 마무리되었으니, 영조는 영수각에 행차해서 친제 의식을 거행하는 새로운 전례(典禮)를 확립하였던 것이다. 그 결과 영조가 실천한 새로운 친제 의식의 절차는 『국조속오례의(國朝續五禮儀)』에 「어첩봉안기사의(御帖奉安耆社儀)」로 편입되어 후대의 전범이 되었다.

> 종성(宗城)이 무릎을 꿇고 안석[几]를 바쳐 명리(明履)에게 주었다. 명리가 그것을 받아서 내시에게 주었다. 임금이 질문하였다. "내시가 안석을 받는 일은 어떠한가? 이것은 고례(古例)인가?" 명리가 답하였다. "의절(儀節)이 그러하옵니다." 임금이 말하였다. "내가 받아서 내시에게 전해주는 것이 옳은 듯하다." 명리가 무릎을 꿇고 지팡이를 바쳤다. 임금이 친히 그것을 받아서 내시에게 주었다. 그리고 기로당상에게 감문을 닫으라고 명하였다. 통례는 예(禮)가 끝났음을 고하였다.[49]

---

48) 『承政院日記』 977책, 영조 20년 9월 9일.

49) 『承政院日記』 977책, 영조 20년 9월 9일 癸未, "宗城, 跪而進几, 以授明履. 明履受而授內侍. 上曰: '內侍受之, 似如何矣? 此古例耶?' 明履曰: '儀節然矣.' 上曰: '予受之而授內侍, 似可矣.' 明履跪而進杖. 上親自受之, 以授內侍, 仍命耆堂閉龕門. 通禮告禮畢."

기로소 입사 절차에서 어첩의 친제 의식이 핵심이지만 영조가 '궤장(几杖)', 곧 안석과 지팡이를 받는 의식 역시 중요하였다. 노인을 상징하는 궤장을 받아야만 비로소 감실의 문을 닫고 통례가 모든 예절의 종료를 고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영수각 친림도」를 보더라도 임금의 욕석 뒤로 내시가 안석과 지팡이를 각각 들고 서 있는 모습이 보인다.[50] 그런데 영조가 궤장을 받는 의절(儀節)은 기해년과 차이가 났다. 기해년에는 상의원(尙衣院) 관원(官員)이 편전 앞의 차비문(差備門)에서 직접 궤장을 바쳤는데, 1744년 8월 27일 영조는 의주(儀注)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절차를 새로 논의하였다. 그 결과 영수각 전배 뒤에 상의원제조(尙衣院提調)가 궤장을 진배(進排)하고 예관이 바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51] 이러한 새 절차에 따라 예조판서 이종성과 승지 조명리를 거쳐 내시에게 안석을 주었던 것이다. 그런데 바로 그 현장에서 영조는 내시가 대신 안석을 받는 일이 적절한가 하는 새로운 의문을 제기하였다. 이 의문에 대해 조명리가 내시가 대신 받는 것이 의절이라는 답변을 했는데도 영조는 자신이 먼저 받은 뒤 내시에게 전해주는 순서가 옳다고 여겨 지팡이를 친히 받은 뒤 내시에게 전했다. 하지만 『국조속오례의』나 『춘관지(春官志)』의 관련 절차를 살펴보면, 궤장을 받는 사람은 임금이 아니라 모두 내시로 규정되었다.[52] 이와 같이 영조가 지팡이를 직접 받은 뒤 내시에게 전한 행동은 공식 의절과 달랐다. 그는 태조와 숙종이라는 선대의 임금 앞에서 노인의 자격을 얻게 되었음을 겸손하게 보여주기 위해 궤장을 친수(親受)하려 했던 것이다.

---

50) 나무로 만든 궤는 길이가 넉 자이고 높이는 1척 1촌 5푼이며, 넓이는 1척 2촌 7푼으로 홍색칠을 가하였다. 장 역시 나무로 만들었는데, 길이가 7척 5촌이고 아홉 마디를 만들어 대나무 모양과 같게 하였으며, 홍색칠을 가하였다. 상단(上端)은 나무를 새겨서 비둘기 모양을 만들고 빛은 약간 푸르며 아래 끝에는 꼬챙이를 꽂았으니 모두 기해년(己亥年: 1719) 고사(故事)에 따른 것이다. 『增補文獻備考』 제215권 「職官考」2, '耆社' 참고.

51) 『承政院日記』 976책, 영조 20년 8월 27일.

52) 가령 『(國朝)續五禮儀』(圭1479), 「御帖奉安耆社儀」의 규정을 보면, 상의원 제조가 궤장을 받들고 동쪽 계단에서 올라가 기둥 밖에 이르러 무릎을 꿇고 예관(禮官)에게 주면 예관도 무릎을 꿇고 궤장을 받들어 좌전(座前)에 놓는다. 그러면 승지가 앞에 나아가 엎드려 궤장을 받들고 내시(內寺)에게 주고 내시는 궤장을 엎드려 받고 임금의 뒤에서 시립(侍立)한다. 『春官志』(권2)에도 "尙衣院提調, 奉几杖跪授禮官, 禮官跪置于座前. 承旨跪奉几杖, 以授內侍, 內侍受以侍立, 而几左杖右."로 되어 있다.

어첩의 친제와 궤장의 친수 의식을 마친 영조는 다시 기영관을 돌아와 기로신 등과 담화(談話)의 시간을 가졌다. 이 담화에서 영조는 "옛날에 어찌 내 나이가 50이 넘어 경(卿)들과 기영각(耆英閣)에서 함께 모이리라 알았겠는가?"라고 말하여 깊은 감회를 토로하고 나이 등을 물었다. 특히 자신이 기사(耆社)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모두 노인이라고 여기지만 당습(黨習)을 싫어하는 마음은 늙지 않는다고 역설하면서 각자 힘써 당습을 저지르지 말라고 훈계하였다. 구체적인 사례로 영조는 공조판서 이성룡(李聖龍, 1672~1748)이 자식을 잘 교육시키지 못하였다고 비판하였다.[53] 성룡의 아들 이형만(李衡萬, 1711~미상)은 일찍이 간관(諫官)으로서 언사(言事)로 죄를 얻었기 때문이다. 영조의 담화는 탕평(蕩平)의 정치를 통해 배타적인 붕당(朋黨)의 구조를 타파하고자 했던 그의 의지를 잘 보여준다. 그는 왕위를 물려받은 이래로 '백성을 위해 당습을 제거한다[爲民祛黨].'는 것이 평소의 마음이었다고 주장하였다.[54] 영조의 입사 다음날인 9월 10일 경현당(景賢堂) 선온(宣醞)에서도 영조는 이성룡에게 거듭 자식 교육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성룡은 어제 밤 귀가하여 아들 이형만에게 임금의 가르침을 전하고 함께 눈물을 흘렸다고 아뢰었다. 그러자 영조는 당색(黨色)을 저지르지 말라는 가르침이 약석(藥石)처럼 성룡의 외아들을 옥성(玉成)시키려는 것이니 술병에 든 술로 부자(父子)의 마음을 세척(洗滌)하라 명하였다. 그러자 성룡은 감읍(感泣)하여 가르침을 따르겠다고 하면서 술병을 들고 물러났다.[55] 이와 같이 영조는 입사 의식과 잔치를 자신의 정치적 관점을 관철시키는 담화의 계기로 활용하였다.

영조가 당색을 멀리하라는 주문을 내린 담화를 보면, 임금과 신하 사이의 담화는 하향(下向)으로만 진행된 듯이 보인다. 하지만 영조와 신하 사이의 정치적 담화는 상호 권면의 성격을 가졌다. 가령 배타적인 붕당 구조를 타파하라는 담화를 들은 기로의 신하들은 '걸언(乞言)'의 예절에 따라 51세에 입사한 임금에게 게으르지 말라고 권면하는 내용의 담화를 전달하였다. 곧 1744년 10월 7일 영조가 입사를 기념하는 진연(進宴)을 받을 때, 예조판서 이종성은 옛 성왕(聖王)들이 연락

53) 『承政院日記』 977책, 영조 20년 9월 9일.

54) 『列聖御製(全)』 제19편, '心字箴'(京城: 列聖御製出版所, 大正13[1923]), 389.

55) 『承政院日記』 977책, 영조 20년 9월 9일.

(燕樂)할 때 조언을 구하던 뜻을 상기시키면서 양로(養老)와 걸언의 예절에 따라 기로의 노신(老臣)들을 불러 노성(老成)한 논의를 자문할 것을 청하였다. 이에 영조가 응하자 기로당상 신사철은 나이가 점차 높아진다고 해서 갑자기 정사(政事)에 염증을 내는[倦勤] 마음을 내지 말고 분발하기를 바라는 소망을 전하였다. 이성룡 역시 『시경(詩經)』「당풍편(唐風篇)」 '실솔장(蟋蟀章)'의 "너무 편안하지 않은가[無已太康]?"라는 문구를 제시하여 군신이 연회에서 서로 즐기는 때 오히려 임금이 심원(深遠)하게 우려(憂慮)하기를 권하였다.56) 이와 같이 늙은 신하들은 유교의 성왕이 제시한 가르침대로 임금이 잠시라도 정사에 게으른 마음을 내지 않고 백성을 위한 정사에 분발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담화를 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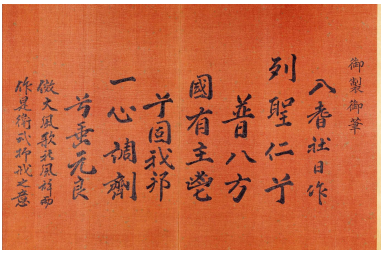

그림 3 영조의 어제시, 국립중앙박물관

기사(耆社)에 들어간 날 짓다
열성(列聖)들의 어진 덕은 온 세상에 퍼졌네.
나라에 세자가 있어 우리나라를 튼튼하게 만드네.
한 마음으로 정치를 조제(調劑)하여 원량(元良)에게 물려주려네.

유방(劉邦)의 「대풍가(大風歌)」와 한무제(漢武帝)의 「추풍사(秋風辭)」를 본받아 지으니, 이는 위무공(衛武公)이 「억(抑)」에서 경계한 뜻이다.57)

담화가 영조와 기로신 사이에서 일대일 대화의 일상 언어라면, 시(詩)는 마음을 담아서 전하는 응축된 문학의 형식이라 하겠다. 영조는 입사한 1744년 9월 9

56) 『英祖實錄』 60권, 영조 20년 10월 7일. 특히 『기사경회첩』의 발문에서도 이성룡은 영조가 기사(耆社)에 나아갔다는 이유로 정사에 염증을 내는 싹이 생긴다면 예전에 행운으로 여겼던 일들은 진정한 행운이 아닐 것이니 어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면서 영조를 권면하였다. 『耆社慶會帖』, 國立中央博物館, 본관8196(35-34), "殿下以一就耆社之故, 居然有倦勤之萌焉, 則向臣等所以爲幸者, 非眞幸也. 豈不可懼乎哉?"

57) 『耆社慶會帖』, 國立中央博物館, 본관8196(35-3), "入耆社日作: '列聖仁兮, 普八方. 國有主鬯兮, 固我邦. 一心調劑兮, 垂元良.' 倣「大風歌」、「秋風辭」而作, 是衛武「抑」戒之意."

일에 유방과 무제, 무공의 시를 참고하여 어제시(御製詩)를 지었다. 일찍이 천하의 대란(大亂)을 평정하고 한(漢)나라를 세운 고조(高祖)는 고향인 풍패(豐沛)에서 부로(父老)들을 불러 잔치를 베풀다가 「대풍가」를 지었고, 무제는 하동(河東)을 순시할 때 배를 띄우고 신하들과 술을 마시다 「추풍사」를 지었다. 두 작품은 처음에 모두 '풍운(風雲)'을 언급하고 있으니, 곧 「대풍가」에서는 "큰 바람이 일어나 구름이 흩날리네."라고 읊었고 「추풍사」에서는 "가을바람이 일어나 흰 구름이 날아가네."라고 노래하였다. 같은 풍운을 노래하지만 전자가 천하를 통일한 위엄과 기세를 노래했다면 후자는 가을의 아름다운 풍경을 묘사하고 있다. 특히 마지막 시구에서 「대풍가」는 "어찌 용맹한 군사들을 얻어 사방(四方)을 지키려나."라고 하여 수성(守城)의 고민을 제시한 반면, 「추풍사」에서는 "젊은 시절은 그 언제던가, 늙음을 어이할까."라고 늙은 현실에 대한 슬픔을 토로하였다.[58] 이러한 까닭에 이수광(李睟光, 1563~1628)도 두 시의 마지막 구절을 평하면서 「대풍가」는 편안할 때도 위태로움을 잊지 않는 뜻이 있는 반면 「추풍사」는 삶을 탐하고 늙음을 탄식하는 뜻이 있다고 비교하였다.[59] 그리고 「억」을 지은 위나라 무공은 95세의 나이에도 게으른 마음을 내지 않고 정사에 매진하고자 늘 경계하였다. 특히 「억」에는 "신명(神明)이 이르는 것을 헤아릴 수 없으니, 하물며 게을리할 수 있겠는가[神之格思, 不可度思, 矧可斁思]?"라는 유명한 구절이 나온다.[60] 이는 헤아릴 수 없는 신명의 임재(臨在)를 의식하면서 늘 두려운 마음으로 경계하면서 책무를 다하려는 자세를 보여준다.

영조가 지은 어제시는 「대풍가」를 형식상 모방한 점이 일부 보인다. 가령 어제시는 「대풍가」처럼 3연으로 구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글자 수 역시 첫 연은 7자, 둘째와 셋째 연은 모두 8자로 동일하다. 하지만 어제시에는 내용상 「대풍가」나

---

58) 『史記』 卷8, 「高祖本紀」, "大風起兮雲飛揚, 威加海內兮歸故鄉, 安得猛士兮守四方"; 『古文眞寶後集』 卷1, '秋風辭', "秋風起兮白雲飛, 草木黃落兮鴈南歸. 蘭有秀兮菊有芳, 懷佳人兮不能忘. 泛樓船兮濟汾河, 橫中流兮揚素波. 簫鼓鳴兮發棹歌, 歡樂極兮哀情多. 少壯幾時兮奈老何！"

59) 李睟光, 『芝峯類說』 권9, '御製詩', "「大風」之終, 有安不忘危之意, 而「秋風」之末曰'少壯幾時兮奈老何', 有貪生歎老之意, 可見高武氣象之如何矣."

60) 『詩經』 「大雅」 '抑'.

「추풍사」에서 볼 수 있는 자연의 풍경이나 인생의 애환(哀歡)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영조의 시는 먼저 선대 임금들의 어진 덕을 칭송한 다음 국본(國本)으로서 세자가 나라를 안정시키는 존재임을 선포하고 영조 본인이 정치를 잘 조제해서 세자에게 나라를 물려주겠다는 다짐으로 마무리되고 있다. 다시 말해 과거의 열성에 대한 찬양과 미래의 세자에 대한 기대, 그리고 현재 본인의 과제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구성과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영조의 시는 오직 왕통(王統)의 계승과 전승이라는 과제로 일관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일관된 과제 아래 「대풍가」와 「추풍사」의 내용이 변용되어 사용되었다. 예를 들어 「대풍가」에서는 수성의 과제를 제기했는데 어제시에서는 세자를 통한 나라의 안정을 다짐하였고, 「추풍사」에서는 늙음의 문제를 제기했는데 영조의 시는 이를 노년의 과제로 전환하여 수용하였다. 또한 영조는 늙은 나이에도 왕통을 전승하는 과제를 변치 않은 마음으로 수행하겠다는 다짐을 했으니, 이는 바로 늘 조심하라는 「억」시의 경계와 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담화에서는 영조와 기로신 사이에 상호 권면의 언어가 교환했다면, 입사를 기념하여 지은 영조의 시는 본인의 정치적 과제를 상기시켜 신하들에게 주지시키는 내용으로 일관하였다. 영조의 입사를 기념해 만든 『기사경회첩』에는 어제시 뒤에 기로신들의 시가 게재되어 있는데, 이 시들은 성대한 의식을 거행한 영조를 축하하거나 태평성대를 이룬 조선 왕조를 찬양하는 내용으로 일관되었다. 가령 신사철은 임금의 장수를 축원하면서 성대한 의식이 거행된 시절을 경하했고, 이성룡은 성인(聖人)들이 우리나라[吾東方]를 만드셔서 태평성대[壽域]의 기운이 나라에 넘친다고 칭송하였다.[61] 1744년 9월 10일 영조는 입사를 기념하여 숭정전에서 신하들로부터 진하(進賀)를 받고 경현당(景賢堂)에 가서 기로(耆老)들에게 술을 내렸는데, 이날은 날씨가 화창하고 평소의 소원을 성취한 영조도 매우 기쁜 얼굴이었다.[62] 이때 영조는 시 한 구를 주면서 신하들에게 연구(聯句)로 시를 이어서 짓도록 명하였다. 곧 그는 "성고(聖考)의 고사(故事)를 26년 만에 따라

61) 『耆社慶會帖』, 國立中央博物館, 본8196(35-4); 본8196(35-8).

62) 『耆社慶會帖』, 國立中央博物館, 본8196(35-33), "厥翼日會耆老諸臣于景賢堂, 宣法醞, 又下御詩一句, 使諸臣賡進. 是日也, 日朗氣和. 天顔甚喜."

서 거행하고 지금 기영연(耆英筵)을 여니 어찌 다행이 아닌가?"[63]라는 시구를 내리고 이에 대응하는 시를 짓도록 명한 것이었다. 이에 화답해서 바친 소위 '갱진시(賡進詩)' 총 9편이 『기사경회첩』에 수록되어 있는데, 신사철이 「억」의 경계를 상기한 것 외에는 모두 영조의 은혜와 잔치의 흥겨움 등을 노래하는 내용이었다. 다시 말해 성대한 입사 의식을 성공적으로 마친 뒤 여는 잔치에서 군주와 신하가 함께 즐기고 영광을 공유하는 군신동락(君臣同樂)을 시로 표현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임금과 신하가 함께 시를 이어 지어서 입사를 기념했던 문화는 숙종의 입사 때에는 없었다. 영조는 시라는 오래된 문학을 활용해서 신하와 함께 입사의 역사적 의미와 영광을 공유하고 향유하는 새로운 문화를 창출했던 것이다.

Ⅳ. 장수 군왕의 신성한 계보, 하늘과 조상에 대한 믿음

1744년 기로소에 들어간 영조는 「어첩자서」에서 숙종이 입사함으로써 태조의 성사(盛事)와 숙종의 효사(孝思)가 기사(耆社)에 환하게 빛나고 상세하게 갖추어졌다고 적었다. 이는 숙종이 태조의 고사를 추종(追踵)하여 기사(耆社)에 들어가 어첩을 써서 영수각에 봉안하였으며 김유(金楺)에게 발문(跋文)을 쓰게 한 공적을 평가한 것이었다.[64] 영조의 평가처럼 숙종의 입사를 증언하는 어첩과 발문의 존재로 인해 관찬 문헌에 없었던 태조의 입사는 역사적 사실로 공인되고 태조를 계술(繼述)하려는 숙종의 효심은 만천하에 드러날 수 있었다. 이런 맥락에서 영조 본인도 어첩에 자신의 존호를 썼을 뿐만 아니라 입사의 경위와 정당성, 감회와 권면 등으로 구성된 「어첩자서」를 1744년에 작성하여 역사에 남겼다. 특히 그는 「어첩자서」를 작성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이후에도 평생에 걸쳐 영수각에

63) 『耆社慶會帖』, 國立中央博物館, 본8196(35-10), "景賢堂耆老諸臣宣醞時 御製【命諸臣聯句】, '故事追行卄六年, 今辰何幸耆英筵.'"

64) 『耆社慶會帖』 '御帖自叙', 國立中央博物館, 본관8196(35-1), "入我朝, 聖祖開國三年甲戌親入耆社, 命文臣正二品以上同參, 居九五之位, 與臣僚尙齒, 自國初始猗歟盛矣. 逮于三百餘年己亥仲春, 我聖考追踵故事, 遂入耆社, 書御帖, 而奉安靈壽閣, 仍命詞臣題跋帖下. 由是以後聖祖昔年之盛事・聖考繼述之孝思, 燦然詳備于耆社矣."

들러 '소지(小識)'를 계속 첨가하였다. 다만 입사 이후 영수각에 행차할 때마다 첨가한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의미가 있는 해에만 소지를 추가하여 적었다. 가령 첫 번째 소지는 영조가 입사한 뒤 8년이 지난 1752년[壬申年] 2월 11일이 되어서야 작성되었다.

> 임금이 몸소 어첩의 책을 펴고 엎드려 눈물을 흘리면서 "두 번째 장은 경묘(景廟)의 어필(御筆)이고, 세 번째 장은 나의 글씨이다."라고 말하였다. … 임금은 "내가 오늘 다시 온 것은 참으로 뜻밖이다."라고 말하고, 직접 보책(寶策)에 소지(小識)를 다음과 같이 썼다. "이제 내 나이 59세로 다행히 기해년에 성고(聖考: 숙종)께서 기사(耆社)에 들어간 연세와 합치되었고 오늘이 바로 그날이어서 추모하는 마음이 배나 더하다. 지팡이를 짚고 와서 보각(寶閣)에 전배(展拜)하니, 소자(小子)의 일어나는 감회를 조금은 펼 수 있었다. 그래서 그 개요(概要)를 갑자년(甲子年) 서첩(敍帖)의 끝에 간략히 기록한다. 이때가 황명(皇明) 숭정(崇禎) 기원후(紀元後) 세 번째 임신년 봄 2월 11일이다." 또 다음과 같이 적었다. "우리 태조대왕(太祖大王)부터 나의 성고(聖考)에 이르는 어첩(御帖)은 곧 나의 황형(皇兄) 경묘(景廟)께서 동저(東邸)에 있을 때 시좌(侍坐)하였다가 명을 받들어 쓴 것이며, 갑자년에 쓴 어첩은 곧 내가 스스로 쓴 것이다. 이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 훗날의 살펴봄에 대비한다. 임신년 중춘(仲春)에 추서(追書)한다." 다 쓰고 나서 임금은 몸소 봉함하고 보궤(寶櫃)의 자물쇠를 채웠다. 예조 당상과 예방 승지가 받들어 전에 있던 감실에 가져다 놓았다. 임금이 일어나서 보궤를 따라가 봉안한 다음 김재로가 감문(龕門)에 자물쇠를 채웠다.[65]

1752년 2월 11일 영조는 영수각의 어첩을 만지면서 숙종과 경종에 대한 추모

---

65) 『英祖實錄』 75권, 영조 28년 2월 11일, "上親自展卷, 俯伏涕下曰: '上二板, 景廟御筆, 第三板, 予筆也.' … 上曰: '予之今日復來, 誠意外矣.' 親寫寶策小識曰: '今予年五十有九, 幸與己亥聖考入耆社年同符, 而此日卽其日也, 追慕之心一倍. 携杖以來, 展拜寶閣, 少伸小子興感之懷. 略記其概於甲子敍帖之末. 寔皇明 崇禎紀元之三壬申春二月十一日也.' 又序曰: '我太祖大王洎我聖考御帖, 卽我皇兄景廟在東邸時, 侍坐承命而書者, 甲子書敍帖, 卽我自寫. 玆以記之, 以備後觀. 壬申仲春追書.' 書訖, 上親緘親鎖寶櫃. 禮堂及禮房承旨, 奉置故處. 上起而隨櫃奉安後, 在魯鎖龕." 『承政院日記』 1079책, 영조 28년 2월 11일자 기사에서는 "又序曰"이 "又書曰"로 되어 있어서 이에 따라 번역하였다.

의 눈물을 흘리고 소지를 작성한 뒤에도 몸소 봉함하고 어첩 상자의 자물쇠를 채울 정도로 지극한 정성을 다하였다. 1744년 9월 9일 입사할 때도 영조는 26년 전 숙종의 입사를 떠올리면서 눈물로 얼굴을 적시었다. 자신이 입사하는 행운을 아뢰고 싶어도 증자(曾子)가 『예기(禮記)』에서 "누구를 위해 효도[孝]하겠는가?", "누구를 위해 우애[弟]하겠는가?"라고 탄식한 것처럼 숙종과 경종이 승하했기 때문이다.66) 이는 유교에서 인륜(人倫)의 근본으로 강조하는 효제(孝弟)의 도리를 다하고 싶어도 이미 아버지와 형이 죽어서 효제를 실천할 수 없는 상황을 탄식한 내용이었다. 숙종에 대한 영조의 사모(思慕)는 지극하였으니, 생일마다 진하(陳賀)를 청하면 거절하고 부모가 돌아가신 후 효도를 다하지 못하는 슬픔을 표현한 『시경(詩經)』의 「육아(蓼莪)」편 등을 외우며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또한 하루는 『예기(禮記)』의 「증자문(曾子問)」을 진강(進講)하였는데, 한 판(板)에 못 미쳐서 슬피 목메어 거의 소리를 이루지 못하고 울면서 강관(講官)에게 "황형(皇兄)의 경연(經筵)이 「증자문」에서 그쳤으니 내가 차마 이 편(篇)을 읽지 못하겠다."고 말한 뒤 다시 강독하지 않았다.67) 이처럼 영조는 평소 숙종에 대한 효도와 경종에 대한 우애를 '눈물'로 표현함으로써 신하들에게 그 진심(眞心)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영조는 하필 59세가 되던 1752년 2월 11일 영수각에 행차해서 첫 번째 소지를 작성하였을까? 그가 작성한 소지의 내용에서 그 까닭을 추론할 수 있다. 추모의 눈물을 흘린 영조는 소지를 두 번에 걸쳐서 나누어 쓰는데, 우선 첫 부분에서는 숙종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시 말해 59세의 나이가 숙종이 입사할 때의 연세와 동일하며 기로소에 행차한 날짜가 바로 숙종의 입사일과 동일하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1744년에 망육(望六)의 논리를 내세워 51세의 이른 나이로 기로소에 들어갔던 영조는 드디어 숙종이 입사했을 때인 59세에 도달하게 되어 「어첩자서」의 끝에 소지로 그 감격을 적었던 것이다. 따라서 영조는 자신이 나이를 기준으로 숙종과 동류가 되었다는 사실을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1752년 2월 11일을 전략적으로 선택했다고 추론할 수 있다. 소지의 둘째 부분은

66) 『耆社慶會帖』 '御帖自叙', 國立中央博物館, 본관8196(35-2).

67) 『英祖實錄』 127권, 영조 대왕 묘지문[誌文].

어첩의 글씨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후대에 보여주는 내용이다. 곧 어첩의 첫 장과 둘째 장에 쓴 태조와 숙종의 휘호는 경종이 세자 시절 아버지 숙종의 명을 받아 대신 쓴 글씨인데 비해, 셋째 장에 쓴 영조의 휘호는 본인이 직접 쓴 글씨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구별하였다. 이와 같이 첫 번째 소지는 영조가 숙종과 같이 59세의 나이가 되었고 태조와 숙종의 어첩이 대필(代筆)인 반면 영조의 갑자년 어첩의 글씨는 친필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강조하였다.

1754년 1월 1일에 61세가 된 영조는 다시 영수각에서 「어첩자서」의 하단 부분에 두 번째 소지를 추가하였다. 1754년은 갑술년으로 태조가 60세로 입사했던 1394년, 곧 갑술년과 동일한 육십(六十) 갑자의 해였다. 1394년에서 1754년까지 360년의 간격이 있으니, 1754년은 1394년으로부터 정확히 6번째 회갑(回甲)이 되는 해였다. 영조는 이 이 회갑을 기념하고자 원조(元朝)에 영수각을 전배하고 소지를 추가해서 작성했던 것이다. 갑자년에 입사한 뒤로 10년의 세월이 흘러 61세가 된 영조는 태조와 숙종이 입사한 성대한 거사를 다시 추억하면서 감사와 행운의 마음을 표하였다.[68] 영조는 자신이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60세, 곧 1753년 계유년(癸酉年)에도 회갑의 나이로 기로소의 영수각에 행차한 적이 있었다.[69] 따라서 영조 개인으로 보면 회갑을 맞은 1753년에 이를 기념하는 소지를 추가할 법도 한데도 작성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회갑이 되는 60세가 아니라 61세에 추가된 까닭은 그의 소지가 영조 자신이 아니라 태조나 숙종과의 연관성이 있을 때에만 작성되었기 때문이다.

---

68) 『耆社志』 권2, 「靈壽玉牒」 '自叙帖後小識', "황명(皇明) 숭정(崇禎) 기원의 세 번째 갑술년이니, 이는 곧 우리 태조대왕께서 기사(耆社)에 들어간 회년(回年)이다. 원조(元朝)에 영수각을 전배하고 친히 자서어첩 하단에 소지(小識)를 쓴다. 아! 소자(小子)가 갑자년에 나이 51세에 기사에 들어갔고 지금 61세에 6번째 회갑을 맞이해 영수각에 전배하면서 두 옛날의 성사(盛事)를 추억해보니 감사와 행운이 마음 속에 교차한다.[皇明崇禎紀元之三甲戌, 卽我太祖大王入耆社回年也. 元朝展拜靈壽閣, 親自紀識於自叙帖下端焉. 噫! 小子頃於甲子, 年五十一入耆社, 今六十有一逢六回甲而拜閣, 追惟兩昔年, 感幸交中矣.]

69) 『承政院日記』 1214책, 영조 39년 1월 1일, "料外六十歲癸酉年, 持鳩杖復拜靈壽閣, 而千千萬萬夢想之外."

> 임금이 직접 가늘게 다음과 같이 썼다. "옛날 영락(永樂) 갑신년은 곧 우리 성조(聖祖: 태조)의 춘추가 칠순이셨다. 지금 소자는 계미년(癸未年)에 역시 나이가 거의 70이 되어 원조(元朝)에 영수각에 공경하게 전배하니, 이는 소자의 몽상(夢想) 밖의 일이라 배수(拜手)하고 기록하여 성열(盛烈)을 드날린다." 다 쓰고 나서 다시 합(閤) 안에 봉안(奉安)하라고 명하였다. 이어 또 "기영각전 칠순군신[耆英閣前, 七旬君臣]"이란 여덟 글자를 손수 쓰고, 기당(耆堂)으로 하여금 화답(和答)해서 올리라 명하였다.[70]

영조는 재위 39년이 되는 계미년 곧 1763년 새해 1월 1일에 고희(古稀)를 맞이하여 영수각에 가서 세 번째 소지를 첨가하였다.[71] 칠순의 나이에 이른 영조는 이날 남다른 감회를 느낄 수밖에 없었다. 그는 일찍이 1744년에 51세로 기로소에 들어가 영수각에서 궤장을 받게 되자 "내 할 일은 끝났다[吾事畢]."고 생각했었는데, 어느덧 세월이 흘러 기로의 신하들이 입사하는 70세의 나이에 도달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날 기로소 대문 앞에서 기영관으로 들어갈 때 영조는 "오늘 진짜로 기사(耆社)에 들어가는구나."라고 말하였고, 우승지(右承旨) 김효대(金孝大, 1721~1781)가 영수각에서 어첩을 꺼내 책상 앞에 놓았을 때 영조는 스스로 먹을 갈고 가늘게 소지를 썼다.[72] 소지는 1404년 태조가 칠순이 되었는데 이제 자신이 순식(瞬息)간에 칠순에 이르러 영수각에 전배하는 일이 꿈에도 생각지 못한 일이라 감격하면서 이를 기록하여 태조의 업적을 드날리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영조는 이날 친제(親製)한 반사문(頒賜文)에서도 국초(國初)의 1404년 곧 갑신년에는 태조가 70세였고 1713년 곧 계사년(癸巳年)에는 숙종의 재위 40년이었다고 상기시켰다. 특히 영조 자신으로 인해 양조(兩朝)의 성사(盛事)가 사라지

---

70) 『英祖實錄』 101권, 영조 39년 1월 1일, "上親自細寫, 若曰: '昔洪 武甲申, 卽我聖祖春秋七十也. 今小子僅七十元朝, 祗拜靈壽閣, 寔小子夢想之外. 拜手以記, 揄揚盛烈.' 寫畢, 更命奉安于閣中. 仍又手書'耆英閣前, 七旬君臣'八字, 命耆堂賡進."

71) 『耆社志』에 따르면, 영조는 1763년의 세 번째 소지 다음에 1764년[甲申]에도 소지를 첨가하였다. 곧 "다음해 정월 중순에 또 전배하였는데, 이는 우리 성조가 칠순이 되는 해이니 추모가 깊고 절실하여 눈물을 닦으면서 덧붙여 쓴다.[翌年正月中旬又拜, 寔我聖祖七旬之歲, 追慕深切拭涕添書.]"는 내용으로 세 번째 소지처럼 자신의 칠순을 기념하였다. 『耆社志』 권2, 「靈壽玉牒」 '自叙帖後小識' 참고.

72) 『承政院日記』 1214책, 영조 39년 1월 1일.

지 않게 되어 자신의 고심(苦心) 또한 천추(千秋)에 할 말이 있을 것이라고 자부하였다. 신하들이 천세(千歲)를 외치는 '산호(山呼)' 소리를 300년 뒤에 다시 듣고 칭경(稱慶)하여 추은(推恩)하는 거사를 50년 사이에 다시 실행했기 때문이다. 이때 나이가 여든으로 추은된 사람들이 200여 명에 이르렀다.[73] 이와 같이 칠순에 지은 소지에서는 태조의 나이와 영조 본인의 나이가 일치한다는 사실이 강조되었고, 반사문에서는 여기에 더해 숙종의 재위 기간과 본인의 재위 기간이 일치한다는 사실이 부각되었다.

영조는 영수각에서 칠순의 의미를 기념하는 소지를 첨가했을 뿐만 아니라 기영각(耆英閣)에 올라 "기영각 앞, 칠순의 군신이라네[耆英閣前, 七旬君臣]."라는 시구(詩句)를 손수 써서 기로신들에게 화답하라고 명하였다. 이에 박치화(朴致和, 1680~1767)가 "그 빛이 찬란하니 팔도가 봄을 함께 하네[不顯其光, 八域同春]."라고 화답하자 영조는 기상(氣象)이 심히 좋으니 90세까지 이를 수 있을 것이라 평하였다. 또한 유최기(兪最基, 1689~1768)가 "복어 무늬 같은 등가죽에 학의 깃털 같은 머리카락이라, 장수를 축원함은 모두 똑같다네[鮐背鶴髮, 祝岡惟均]."라고 화답하자 영조는 "참으로 노인의 모습을 그렸다."고 평하였다.[74] 이와 같이 영조는 칠순의 노인이 되어 기로당상들과 진정한 기로의 동질감을 느끼고 함께 시를 주고받으면서 본인의 칠순을 기념하였다. 칠순의 나이를 각별하게 생각한 영조는 70대 초반에 신하들과 함께 즐기던 노년의 삶을 시와 잔치, 그림으로 표현한 책자로 제작하였다. 가령 70세인 1763년의 『기영각시첩(耆英閣詩帖)』, 72세인 1765년의 『영수각송(靈壽閣頌)』과 『친림선온도(親臨宣醞圖)』, 그리고 『영조을유기로연(英祖乙酉耆老宴) 경현당수작연도병(景賢堂受酌宴圖屛)』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책자를 통해서도 영조 시대에 군신이 함께 즐기던 노년의 문화가 가장 융성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영조는 80세가 된 1773년 계사년에 마지막 소지를 첨가하였다. 그런데 기존의 소지와 달리 그 내용이 몹시 간단하였으니, "계사년 나이 80에 전배한다."[75]고

---

73) 『英祖實錄』 101권, 영조 39년 1월 1일.

74) 『承政院日記』 1214책, 영조 39년 1월 1일.

75) 『耆社志』 권2, 「靈壽玉牒」 '自叙帖後小識', "癸巳, 年八十拜."

적었을 뿐이다. 영조가 지은 소지의 내용을 기존의 소지와 비교해 보면 간략할 뿐만 아니라 본인에 대해서만 기술하는 특징이 있다. 가령 1752년 첫 번째 소지가 59세의 나이로 아버지 숙종과 영조 자신을 동일시하는 내용이었다면, 1754년 두 번째 소지는 태조 이성계가 입사한 갑술년과 동일한 360년 뒤의 갑술년을 기념하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1763년에 지은 세 번째 소지에서는 태조와 영조 모두 칠순으로 동일하다는 점이 기술되었다. 이와 같이 영조가 자신을 태조나 숙종에 짝 지워서 연결시켰던 기존의 소지와 달리 마지막 소지에서는 80의 나이에 전배한다는 내용만 나오고 있다. 기존의 소지들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비교해 본다면, 마지막 소지의 내용이 왜 그러한지 추론할 수 있다. 영조는 1744년에 51세로 입사한 뒤 1752년에 아버지 숙종이 입사한 59세에 도달하였다. 그런데 숙종은 1753년 60세 임종을 맞이하였다. 그 결과 1754년 두 번째 소지부터는 숙종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고 오직 태조와 자신의 연관성을 소지에 적고 있다. 그런데 태조는 1408년 73세로 임종했으니, 이미 73세를 넘어 80세에 도달한 영조는 마지막 소지에서 자신에 대해서만 기술했던 것이다. 다시 말해 마지막 소지는 조선 왕조 장수 군왕의 계보에서 영조 자신이 최고의 나이에 도달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간략하고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 전략적으로 선택한 문구였다.

> 아! 국초의 갑신년은 곧 우리 성조(聖祖)의 연세가 칠순이 된 해였고 옛날 계사년은 곧 우리 성고(聖考: 숙종)께서 재위하신지 40년이 되는 해였다. … 이는 바로 『중용(中庸)』에서 "대덕(大德)은 반드시 그 수명을 얻는다." · "(대덕은) 반드시 그 지위를 얻는다."고 말한 것의 징험이다.76)

영조는 태조나 숙종을 자신과 동일시할 때 왜 나이의 숫자에 집착했을까? 이 질문의 답은 나이와 덕을 연결시키는 유교 문화의 관점에서 찾을 수 있다. 영조는 『중용』의 문구에 기초해서 태조와 숙종이 큰 덕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칠순의 나이에 이르거나 40년 동안이나 재위할 수 있었다고 해석하였다. 『중용』에서는 110세까지 살았다고 전해지는 순(舜) 임금을 예로 들면서 "대덕은 반드시 그 지

76) 『承政院日記』, 영조 39년 1월 1일, "嗚呼, 國初甲申, 卽我聖祖寶算七旬之年, 昔年癸巳, 卽我聖考寶錄四紀之歲. … 此正『中庸』所云'大德必得其壽'、'必得其位'之驗也."

위를 얻고 … 반드시 그 수명을 얻는다."고 말하였다.[77] 이 문구에서 알 수 있듯이 성왕(聖王)이었던 순처럼 큰 덕과 최고의 지위, 그리고 장수가 일치하는 임금이야말로 이상적인 이미지였다. 그런데 현실의 임금인 영조는 이미 최고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명의 길이를 통해 대덕의 소유를 증명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영조뿐만 아니라 사대부 관료와 지식인들이 공유하였다. 다만 영조가 자신에 대해 대덕을 자처할 수는 없는 까닭에 신하들이 영조의 장수를 대덕의 의미로 해석하였다. 가령 영조의 칠순과 재위 40년을 기념해서 1763년에 제작된『기영각시첩』에서 판중추부사 이정보(李鼎輔, 1693~1766)는 영조가 태조처럼 칠순의 나이가 되고 숙종처럼 재위 40년에 이른 사실을 "대덕은 반드시 그 수명을 얻는다."는 문구로 해석하였다.[78] 또한 1765년에 제작된『영수각송』에서도 태조와 숙종을 이어 영조가 갑자년에 입사하고 22년이 지나 세손(世孫: 훗날의 正祖)을 이끌고 영수각에 전배한 일을 성대한 거사로 칭송하면서『중용』의 윗 구절이 인용되었다.[79] 이러한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영조는 '나이'의 숫자를 덕의 상징으로 인식하는 유교의 전통에 따라 소지를 작성했던 것이다.

유교 문화에서는 임금의 장수를『중용』처럼 덕의 소유 문제로 접근하는 동시에 실제로 장수의 복을 누리려면 하늘이나 조상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관점에는 자연스럽게 만물의 주재자(主宰者)인 하늘과 저승의 존재인 조상의 신령이 이승의 임금에게 복을 내려준다는 종교적 신앙이 전제되어 있다.[80] 예를 들어 영조는 1744년에 지은「어첩자서」에서 자신의 기로소 가입은 근원적으

77)『中庸章句』17장, "大德必得其位, 必得其祿, 必得其名, 必得其壽."

78)『耆社志』권13,「西樓文藻」'耆英閣詩帖序'【英宗三十九年癸未】.

79)『靈壽閣頌과 親臨宣醞圖』(城南: 韓國學中央硏究院 藏書閣), 2008, 7-8, "臣等於是謹拜手稽首而賀曰: '於休盛哉! 惟我太祖康獻大王歲甲戌始入耆社, 越三百二十有六年己亥, 惟我肅宗大王入耆社, 繼而我聖上甲子入耆社. 歷二十有二年緬焉興懷, 率世孫來拜, 猗歟休哉!『傳』曰:「大德必得其壽」.'"

80) 하늘과 조상이 복을 내려준다는 믿음은 하늘과 조상이 사람의 마음을 살펴본다는 믿음과 연결된다. 가령 1758년에 지은『어제속상훈(御製續常訓)』에서 영조는 후대의 임금에게 가르치는 국가 운영의 원칙으로 "경천(敬天)"과 "애민(愛民)"을 가장 중시하면서 하늘과 조상이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본다[此心皇天庶幾鑑臨, 陟降庶幾照燭也]는 믿음을 제시하였다. 이『御製續常訓』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奎2422)이다.

로 조상의 신령이 보우(保佑)하신 결과라고 해석하였다.[81] 『기영각시첩』에서도 영조가 하늘의 보우와 조상의 은덕을 통해 태조와 숙종을 계술(繼述)하고 성대한 의식을 재현할 수 있었다고 보았다.[82] 또한 자신이 덕과 능력도 없는데도 단지 군왕의 지위를 차지하고 장수를 누려 태조와 숙종의 옛일을 실천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조상이 내려준 은덕이라고 여겼다.[83] 이정보 역시 자신이 천한 신하의 신분으로 천 년에 한번 있는 거사에 참여하여 술잔을 주고받은 영광은 하늘이 보우하시고 조종이 기뻐하셔서 내려준 무궁한 복[無疆之休]이라고 칭송하였다.[84] 일찍이 1744년 9월 11일에 봉조하(奉朝賀) 이의현은 "하늘과 조종께서 우리 임금을 독실하게 보우하시어 기사(耆社)의 자리에 거듭 올라 두 성인의 아름다운 행적을 계승하게 되셨습니다."라고 간명하게 말한 적이 있다.[85] 이러한 발언들에서 알 수 있듯이 영조와 신료들은 모두 하늘과 조상의 도움이 있어야만 장수의 복을 누릴 수 있다고 믿었다. 따라서 장수의 복을 누린 영조는 하늘과 조상의 은덕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던 것이다.

영조는 태조와 숙종, 그리고 자신으로 이어지는 장수 군왕의 신성한 계보를 구성하기 위해 입사 의례와 군신간의 담화, 시와 소지의 작성 등 전략적인 실천들을 다양하게 선보였다. 그리고 사대부 신하들은 유교의 도덕적, 종교적 관념으로 영조의 주관적 의지에 호응함으로써 장수 군왕의 상상적 계보가 사회적 공인을 획득할 수 있었다. 그들은 더 나아가 장수 군왕들이 조선왕조를 '인수지역(仁壽之域)'으로 만들었다고 평가하였다. 원래 '인수(仁壽)'란 "어진 사람이 장수한다."[86]는 『논어(論語)』의 문구에서 나왔으니, 이 용어는 임금이 백성을 자식처럼

---

81) 『耆社慶會帖』 '御帖自叙', 國立中央博物館, 본관8196(35-2), "嗚呼! 此實我陟降之垂佑也."

82) 『耆社志』 권13, 「西樓文藻」 '耆英閣詩帖序' 【英宗三十九年癸未】.

83) 『承政院日記』 1212책, 영조 38년 11월 12일, "否德無能, 徒位徒壽, 敢踐兩朝之舊事, 是誰之賜? 陟降攸賜."

84) 『靈壽閣頌과 親臨宣醞圖』(城南: 韓國學中央硏究院 藏書閣), 2008, 8-9, "臣等俱以賤品, 生逢聖世得享天年, 獲參千一曠擧, 尤有榮焉. … 此罔非皇天眷祐, 祖宗悅豫, 以引以翼, 降此無疆之休也."

85) 『承政院日記』 977책, 영조 20년 9월 11일, "奉朝賀李宜顯箚曰: ' … 惟天惟祖宗, 篤祐我聖躬, 重登耆社之席, 以繼二聖徽跡.'"

사랑하는 인정(仁政)을 펼침으로써 백성들이 자신의 천수(天壽)를 누리는 나라가 되었다는 뜻을 갖는다. 조선 왕조의 세 장수 군왕과 연결시켜 논해보면, 우선 태조가 조선을 창업하고 한 시대를 인수의 나라로 올렸으며 몇 백년(百年) 동안 깊은 인덕(仁德)이 누적되어 숙종과 영조 시대에 이르러 다시 '수역(壽域)'을 열게 되었다고 기술되었다.[87] 가령 영조 시대에는 초야에 100세가 넘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고 조정에도 흰머리에 복어 등가죽을 한 늙은 신료들이 태반이었다고 한다. 그래서 서명응(徐命膺, 1716~1787)은 190세를 향유한 포희(庖犧)와 110세를 향유한 순임금의 사례를 들어 영조의 정치가 조야(朝野)의 신민(臣民)들을 장수하게 만들었다고 칭송하였다.[88] 이러한 칭송에 따르면 영조는 좋은 정치로 백성을 모두 장수하게 만든 고대의 성왕(聖王)에 견줄 수 있다. 다시 말해 사대부 신하들은 유교적 이상에 따라 장수 군왕들을 태평성대로 이끈 성왕의 이미지로 채색함으로써 그 계보의 신성한 권위를 보증하였던 것이다.

V. 기로 정치의 융성과 쇠락

우리가 보았듯이 조선왕조에서 영조는 나이를 일종의 '차등화 원리'(differentiation principle)로 활용해서 늙은 군신(君臣)의 사회적, 정치적 권위를 증진시키는 유교 군왕의 기로 정치를 융성하게 발전시켰다. 우선, 그는 기로소에 가입할 때 영수각에서 행차하여 어첩(御帖)을 친제(親題)하고 궤장(几杖)을 친수(親受)하는 의례를 처음으로 거행하였고, 「어첩자서」를 직접 쓴 뒤에도 평생에 걸쳐 '소지(小識)'를 전략적으로 추가함으로써 장수 군왕 중에서도 최고의 나이에 올랐다는 사실을 역사의 기록에 남겼다. 더 나아가 영조는 신하들과 시(詩)를 주고받으면서 노년을 함께 즐기는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였고, 어첩 친제 등의

86) 『論語』「雍也」, "仁者壽."

87) 『耆社志』 권13, 「西樓文藻」 '靈壽閣記', "我聖祖創業垂統, 躋一世於仁壽之域, 屈威參社, 與耆老同樂, 以寓三代尊王敬老之義, 且深仁厚德, 積累數百年, 傳次于肅、英兩朝, 重開壽域, 三題寶牒, 此千古帝王之所未有者也."

88) 『耆社志』 권13, 「西樓文藻」 '耆社同會錄跋'.

의식을 국가의 전례로 만들어 『국조속오례의(國朝續五禮儀)』 등의 문헌에 새로 등재시켰다. 영조는 이러한 문화적, 제도적 실천을 전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태조와 숙종을 계술(繼述)하는 효도를 다했을 뿐만 아니라 장수 군왕의 신성한 계보를 구성하려 노력하였다. 이러한 그의 노력에 호응한 늙은 신하들은 영조를 포함한 장수 군왕들이 조선을 '인수(仁壽)'의 나라로 만들었다고 칭송함으로써 그 상징적 계보의 신성한 권위를 공인(公認)하였다. 특히 늙은 나이가 덕의 상징이고 장수가 하늘과 조상이 내려준 복이라고 여기는 유교의 도덕적, 종교적 관념을 공유한 신하들은 『중용(中庸)』에 근거해서 영조를 대덕(大德)의 성왕(聖王)과 견주었다. 그 결과 영조는 현실 권력의 '왕통(王統)'을 넘어 유교 이념의 '도통(道統)'에 근접하는 신성한 권위와 사회적 존경을 확보할 수 있었다.

군주제(君主制)의 정체(政體)에서 모든 권력과 권위는 임금에게 귀속되었다. 따라서 권위의 정점에 있는 임금과의 거리가 신하의 정치적 권위를 나타내기 마련이었으니, 기로의 신하들이 임금과 함께 동일한 회원이 되고[同社] 제명록(題名錄)에 이름을 같이 적는[共題] 일은 천고(千古)의 성절(盛節)로 여겨질 수밖에 없었다.[89] 영조의 입사 사례에서 보듯이 기로의 신하들은 기로소의 기영관이나 대궐에서 임금이 내리는 잔치에 참여해 즐기거나 시와 담화를 주고받는 특권을 누릴 수 있었다. 특히 그들은 기로소의 선생안(先生案)에 본인의 성명을 적고 얼굴을 그린 도상(圖像)을 보관함으로써 태조와 숙종, 그리고 영조의 존호가 적힌 신성한 어첩과 함께 기로소의 공간을 공유하는 불후(不朽)의 영광을 누릴 수 있었다. 따라서 사회적 선망과 존경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기로소 가입의 조건은 후대로 갈수록 엄격해지는 경향을 띄게 되었다. 곧 70세 이상의 나이, 문과(文科) 출신의 문신(文臣), 그리고 정2품 이상의 품계라는 세 가지 조건이 엄격하게 준수되어 하나라도 조건을 벗어나면 가입할 수 없었다.[90] 이러한 사실에서 알 수

89) 『耆社志』 권13, 「西樓文藻」 '重訂耆社題名記序', "君臣同社, 上下共題, 此誠千古盛節."

90) 문과 출신이 아니라 무과(武科)나 음서(蔭敍) 출신의 늙은 고위 관료는 제외되었다. 예를 들어 광해군 때의 정인홍(鄭仁弘)과 숙종 때의 허목(許穆)은 높은 지위와 많은 나이를 가져 일시적으로 기로소에 가입되었다가 결국 문신 출신이 아니란 이유로 가입이 철회되었다. 『增補文獻備考』 제215권 「職官考」2, '耆社'. 또한 해당 품계에 속하더라

있듯이 기로의 신하들은 위로는 기로소에 가입된 장수 군왕의 후광을 나누어 받아 상징적 지위를 상승시킨 반면 동료 신하들과 자신을 엄격히 구별하는 방식으로 사회적 권위와 공경을 점유할 수 있었다.

우리가 보았듯이 영조는 다양한 전략적 실천들을 통해 나이를 차등화 원리로 활용하여 상징적인 사회정치적 권위를 창출하는 조선 유교의 기로 정치를 가장 발전시켰다. 하지만 영조 이후 후대의 임금 가운데 장수해서 기로소에 가입한 임금은 고종(高宗, 1852~1919) 한 명에 불과하였다. 고종은 150여 년이 지난 1902년 51세의 나이로 기로소에 가입하였다. 그는 기본적으로 '망육(望六)'의 나이로 입사한 영조의 '갑자고사(甲子故事)'를 모범으로 삼아 입사하였다. 가령 고종은 광무(光武) 6년이 되는 1902년 3월 27일에 기로소에 행차하여 영수각에서 몸소 어첩에 본인의 휘호를 쓰고 궤장을 받았다. 1901년부터 신하들이 1902년에 입사하기를 청하는 상소를 올려도 거절했다가 황태자가 거듭 청하자 승낙하고 입사했던 것이다.[91] 그런데 고종이 입사할 때의 모습은 영조의 입사 풍경과 극명하게 대비된다. 조선 왕조에서 유일하게 부자(父子)가 함께 입사하게 된 영조의 기로소 입사와 행차에는 추모와 감격의 눈물이 수반되었다. 하지만 고종의 입사는 단지 형식적인 의식에 불과하였으며 어떠한 감격도 보이지 않았다. 더구나 시대의 격변 속에서 이뤄진 고종의 마지막 입사 의식은 유교적 기로 정치의 쇠락(衰落)을 암시하였다.

> 임인년(1902년) 3월 27일 오시(午時)에 임금과 황태자(훗날의 純宗)는 기로소의 영수각에 이르렀다. … 임금이 심순택(沈舜澤)과 윤용선(尹容善)에게 "아까 본 경(卿) 등의 어린 자손들 역시 따라서 들어오게 하라."고 말하였다. 조병세(趙秉世)가 "이 아이들 가운데 훗날 반드시 나이가 많은 이가 있을 텐데 지금 과거제가 없어졌으니 어떻게 기사(耆社)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신은 이것을 탄식합니다."라고 말하자 고종은 웃으면서 말하였다. "어찌 변통(變通)이 없겠는가?"[92]

도 실직(實職)이 없거나 죄인(罪人)의 명부에 올라 있어도 가입할 수 없었다. 李宜顯, 『陶谷集』 권25, '刪補耆老所題名錄序' 참고.

91) 『增補文獻備考』 제215권 「職官考」2, '耆社'.

92) 『承政院日記』 3144책, 고종 39년 3월 27일, "壬寅三月二十七日午時, 上與皇太子詣耆

서구적 근대 체제의 압박 속에서 1894년 대한제국(大韓帝國)을 세우고 '황제(皇帝)'를 칭한 고종에게 기로소 가입은 영조처럼 절실한 과제가 될 수 없었다. 더구나 소위 '갑오개혁(甲午改革)'으로 과거제도가 이미 폐지된 상태였으니, 문과 출신에다 정2품 이상으로 70세가 넘어야 기로소에 가입할 수 있다는 조건은 더 이상 성립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진관(特進官) 조병세(趙秉世, 1827~1905)는 나이 어린 미래 세대가 훗날 늙어도 기로소에 가입할 수 없게 되었다고 탄식했던 것이다. 이러한 탄식 앞에 고종은 순간의 임기응변(臨機應變)으로 변통의 가능성을 암시하면서 얼버무릴 수밖에 없었다. 고종이 입사한 날에 생긴 이 문답은 유교적 기로 정치의 종언(終焉)을 암시하는 하나의 에피소드(episode)라 하겠다. 국가의 정체와 관료 임용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뀐 서구적 근대의 환경 속에서 과거제도에 기초한 기로 정치와 문화는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웠다. 게다가 영조가 진심(眞心)의 눈물과 전략적 실천들을 통해 기로 정치를 발전시킨 반면 고종은 '갑자고사'를 형식상 모방해서 재현했을 뿐이었다. 그 결과 조선왕조에서 늙은 나이를 전략적인 차등화 원리로 활용해서 군신(君臣)의 사회적, 정치적 권위를 함께 상승시켰던 유교 군왕의 기로 정치는 영조 시대에 가장 융성하였다가 마지막으로 기로소에 가입한 고종에 이르러 쇠락의 길로 들어섰다.

주제어: 영조(英祖), 기로(耆老), 기로소(耆老所), 영수각(靈壽閣), 어첩(御帖)

원고접수일: 2022년 11월 13일
심사완료일: 2022년 12월 26일
게재확정일: 2022년 12월 28일

老所靈壽閣. … 上謂舜澤·容善曰: '俄見卿等穉孫, 亦隨入矣.' … 秉世曰: '此兒輩, 後日亦必有壽高者, 而今無科制, 將何以入耆社乎? 臣以是爲歎矣.' 上笑曰: '豈無變通耶?'"

참고문헌

『耆社慶會帖』. 서울: 國立中央博物館, 본관8196, 1745.

『御製續常訓』. 서울: 奎章閣韓國學硏究院, 奎2422, 1758.

洪敬謨. 『耆社志』. 서울: 奎章閣韓國學硏究院, 奎7116-v.1-8, 1849.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편집. 『靈壽閣頌과 親臨宣醞圖』. 城南: 韓國學中央硏究院, 2008.

국립중앙박물관 편저. 『조선시대 초상화Ⅲ』.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2009.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편저. 『영조대왕(英祖大王)』. 城南: 韓國學中央硏究院, 2011.

박상환. 『朝鮮時代 耆老政策 硏究』. 서울: 혜안, 2000.

박정혜. 『조선시대 궁중기록화 연구』. 서울: 일지사, 2000.

시몬 드 보부아르. 『노년: 나이듦의 의미와 그 위대함』. 홍상희·박혜영 옮김. 서울: 책세상, 2012.

엄소연. 『영조의 식사정치』. 서울: 한국외대 지식출판콘텐츠원, 2020.

이 욱. 『조선시대 국왕의 죽음과 상장례(喪葬禮)』. 서울: 민속원, 2017.

최종성. 『조선 왕실의 민속종교』. 고양: 국학자료원, 2022.

Bell, Catherine M.. *Ritual Theory, Ritual Practic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2.

권용란. 「조선 후기 육상궁(毓祥宮) 의례(儀禮)의 형성과 국가 조상신」. 『유교와 종교학』, 서울대 종교문제연구소 편, 233-253. 서울: 서울대 출판부, 2009.

김문식. 「1719년 숙종의 기로연 행사」. 『史學志』 40 (2008): 25-47.

김효경. 「조선시대 노인의 존재양상: 연령과 신분을 중심으로」. 『역사민속학』 52 (2017): 7-46.

심예원. 「1744년(영조 20) 영조의 耆老所 入社 의례와 정치적 의미」. 『朝鮮時代史學報』 96 (2021): 85-122.

안호용. 「한국의 노인인식에 관한 연구 - 주요 사서에 나타난 노인 존경과 나이 존경 표현을 중심으로」. 『민족문화연구』 81 (2018): 517-553.

이연승. 「구장(鳩杖), 노인에게 부여하는 황제의 권위: 한대 왕장제(王杖制)를 중심으로」. 『종교문화비평』 39 (2021): 59-92.

임부연. 「노년의 몸과 유교적 성찰」. 『종교문화비평』 39 (2021): 181-233.

임지연. 「肅宗 45년(1719) 『耆社契帖』과 英祖 20년(1744) 『耆社慶會帖』 연구」.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2017.

임현수. 「중국 고대 노인의 정체성과 권위에 관한 연구」. 『종교문화비평』 39 (2021): 15-58.

장석만. 「두 가지 몸의 늙음: 한국 근대 노년 관점의 변화」. 『종교문화비평』 39 (2021): 234-272.

최수빈. 「'노화'와 '장생'을 바라보는 도교적 시선(視線)의 복합성과 그 함의」. 『종교문화비평』 39 (2021): 136-180.

Vermeersch, Sem. "Ageism in Pre-Modern East Asia: The Different Trajectories of a Buddhist Parable about the Elderly in Japan and Korea." 『종교문화비평』 39 (2021): 93-135.

Abstract

The Confucian King's Politics of the Elder Statesmen:

Focusing on King Yeongjo's Strategic Practices

Lim, Boo-Yeon (Seoul National Univ.)

This paper aims to understand the Confucian king's politics of the elder statesmen (*giro* 耆老) by focusing on King Yeongjo's strategic practices toward the Bureau of Elder Statesmen (Giroso 耆老所). First of all, when King Yeongjo joined the Giroso at the age of 51 in 1744, he visited the Spirit Longevity Hall (Yeongsugak 靈壽閣) and practiced the ritual of personally writing his name on the royal album (*eocheop* 御帖), and showed off his age-based status through the addition of personal notes (小識) following the preface of the royal album. Moreover, Yeongjo created a new culture of enjoying old age together by exchanging poems with his officials, and made the king's writing his name on the royal album a national ritual. By strategically carrying out these cultural and institutional practices, King Yeongjo not only fulfilled his filial duty toward King Taejo (太祖) and King Sukjong (肅宗), but also tried to construct the sacred genealogy of long-lived kings. In response to his efforts, the old officials recognized the sacred authority of this symbolic genealogy by praising the fact that long-lived kings had made Joseon (朝鮮) into a country of benevolence-longevity (仁壽). In particular, the officials, sharing the Confucian idea that old age was a symbol of virtue and longevity bestowed by heaven and the ancestors, compared Yeongjo to the sage-king (聖王) of great virtue on the basis of the *Doctrine of the Mean* (中庸). And they tried to create age-based social authority by distinguishing themselves from their fellow subjects. In conclusion, King Yeongjo used old age as a strategic differentiation principle to

develop the Confucian king's politics of the elder statesmen, which raised the social and political authority of both the old king and his officials together in the Joseon Dynasty.

Keywords: King Yeongjo (r. 1724-1776), elder statesmen, Bureau of Elder Statesmen (Giroso 耆老所), Spirit Longevity Hall (Yeongsugak 靈壽閣), royal album (*eocheop* 御帖)